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 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 UP-DATING하는 한편 발간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 불가리아

kotra

http://www.kotra.or.kr

# 차 례

1. 국가개요 ..... 1
2. 경제동향 및 전망/2003 경제동향 ..... 3
3. 경제동향 및 전망/2004 경제동향 ..... 4
4. 한국과의 무역관계 ..... 5
5.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 12
6. 환전 ..... 15
7. 기후 ..... 16
8. 공휴일 ..... 17
9.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 18
10. 교통/통신/교통,통신 ..... 19
11. 유용한 연락처 ..... 22
12. 여행시 유의사항 ..... 26
13. 관광명소 ..... 29
14. 국토 ..... 32
15. 국민 ..... 33
16. 역사 ..... 36
17. 정치사회동향/정치사회동향 및 대외정책 ..... 38

18. 국가경쟁력/일본 JCRA 불가리아 투자적격 등급으로 평가 42

19. 주한 주재국기관 ..... 42

20. 물가정보 ..... 43

21.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 44

22.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 45

23.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 47

24. 전반적 투자여건/자유무역지대 ..... 50

25. 전반적 투자여건/회사설립절차 ..... 52

26. 전반적 투자여건/조세제도 ..... 55

27. 전반적 투자여건/고용 및 노사관계 제도 ..... 59

28. 주요경제지표/경제지표 ..... 61

29.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한-불가리아 교역통계 ..... 63

30.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 불가리아 품목별 수출실적 .. 63

31.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 불가리아 품목별 수입실적 .. 64

32.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한-불가리아 투자교류 동향 64

33. 지방자치구역동향/주요지방자치단체 ..... 66

# 1. 국가개요

**일반사항**

| | |
|---|---|
| 국 명 | 불가리아(Bulgaria), The Republic of Bulgaria |
| 위 치 |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남동부에 위치<br>루마니아, 그리이스, 흑해, 터키, 신유고, 마케도니아와 접경 |
| 면 적 | 110,912평방㎞ (한반도의 약 1/2, 유럽국가 중 15번째 규모)<br>국경 1,808㎞, 해안선 354㎞, 영해 12해리 |
| 기 후 | 보통적인 대륙성기후로 4계절이 있으며 연평균기온은 섭씨 10.5도<br>- 지역적으로 중앙의 발칸산맥을 경계로 남부 평야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북쪽은 대륙성기후임<br>- 우리나라의 기후와 대체로 비슷하나 겨울에는 눈이 좀 더 많고 추우며 여름에는 습도가 낮아 무더운 날씨가 적음 |
| 수 도 | 소피아 (SOFIA), 인구 120만명 |
| 인 구 | 7,827천명 (2003.12월 추정치)<br>- 인구증가율 -1.1%(95-99년 연평균)<br>- 주요도시 : PLOVDIV(34만명), VARNA(30만명)<br>RUSE(18만명), BURGAS(18만명) |
| 민 족 | 불가리아계 666만명 (83.94%)<br>터키계 75만명 (9.42%), 집시 37만명 (4.68%) |
| 언 어 | 불가리아어, 상용어는 러시아어, 영어, 독어, 불어 |
| 종 교 | 불가리아 정교 83.5%, 이슬람 13%, 기타 프로테스탄트, 카톨릭 |
| 건국(독립)<br>기념일 | 3.3일 (1878년)<br>실질적인 독립은 1908.9.22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독립)<br>* 이로 인해 불가리아의 경우 3월 3일과 9월 22일이 모두 국경일임 |
| 정부형태 | 의회 민주주의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혼합) |
| 국가원수 | 대통령 Georgi Parvanov (2002.01.22, 54.13%, 취임, 임기 5년)<br>- 총리 Simeon Saxe-Coburg-Gotha (2001.07.24) 취임NMS2<br>(National Movement Simeon2, 국립운동 시메온 2세 당수) |

| | |
|---|---|
| 입 법 부 | 단원제(240석), 4년 임기로 의석의 절반은 직선제<br>나머지는 정당별<br>비례대표제로 선출<br>- 선거 : 2001년06월 (다음총선: 2005년 6월 25일)<br>- 의석비율 : NMS2(국립운동 시메온 2세) 42.74%<br>UHdDF 18.18%, CFB 17.15%, MRF 7.45%<br>- 의석수 : NMS2 120, UhdDF (Union of Democratic Forces 51<br>CFB (Coalition for Bulgaria) 48<br>MRF (Movement for Rights and Freedoms or MRF<br>[Ahmed DOGAN] 21<br>* 주의 : 2003년 5월 이후 의석 현황<br>- NMS2 110, UHdDF 50, CFB 48, MRF 20, 독립 12<br>- 국회의장: Mr. Ognyan Gerjikov (2001.7취임) |
| 주요정당 | 여당National Movement Simeon 2<br>야당UhdDF (Union of Democratic Forces), CFB (Coalition for Bulgaria), MRF (Movement for Rights and Freedoms) |
| 정부성향 | 중도 우익, 친 EU, 친 NATO, 친미, 친독<br>군사력 : 45,000명 (2004년 추정) |

**< 경제지표 >**

**(주요경제지표)**

| 연도 | 단위 | 2002 | 2003 | 2004 |
|---|---|---|---|---|
| 경상GDP | 미$억 | 156 | 199 | 240 |
| 1인당GDP | 미$ | 1,978 | 2,538 | 3,101 |
| 실질성장율 | % | 4.8 | 4.3 | 5.6 |
| 실업율 | % | 16.3 | 13.5 | 12.2 |
| 물가상승율 | % | 3.8 | 5.6 | 6.3 |
| 연평균환율 | BGN/USD | 2.07697 | 1.73262 | 1.57511 |
| 외채 | 미$억 | 112 | 130 | 161 |
| 외환보유고 | BGN억 | 89.5 | 103.8 | 132.4 |
| 수출(FOB) | 미$억 | 57 | 74 | 99 |
| 수입(FOB) | 미$억 | 73 | 99 | 133 |
| 무역수지 | 미$억 | -16 | -25 | -34 |
| 경상수지 | 미$억 | -8 | -19 | -18 |
| 외국인투자유치 | 미$억 | 9 | 21 | 25 |

자료원 : www.stat.bg

| | |
|---|---|
| 구매력지수 | 1인당 GDP 미$7,000 (2003년 기준) |
| 주요 세율 | 부가가치세 20%, 법인세 15% |
| 화폐 단위 | 레브(Lev), 복수는 레바(Leva)라고 하며 BGN으로 표기 |
| 환 율 | 2001년 1월부터1 Euro = 1.95583 Leva로 고정 |
| 산업구조<br>(2003) | 상업(30%), 제조업(20%), 농림업(17%), 관광업(11%)<br>건설업(10%), 운송업(8%) |
| 교 역 품 | 원유, 전력, 화학제품 및 플라스틱, 기계류 및 수송기계<br>철강제품 섬유 및 신발, 농산물 및 식품주요자원 :<br>농업과 임업부문에 제한, 석탄, 망간, 구리, 철강석, 고령토 |
| 외국인<br>투자유치 | 2007년 1월 1일부 EU 가입에 대비하여 이태리<br>독일등 서유럽국가의 투자유입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br>저렴한 인건비와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 등이 투자의 매력 |

**< 한-불가리아 관계 >**

| | |
|---|---|
| 체결협정 | 과학 · 기술협력협정(1990), 문화협정(1994)<br>이중과세 방지협정(1995)<br>일반사증 면제협정(1994), 항공협정(1995), 무역협정(1996) 등 |
| 교역규모<br>(2004년) | 279.0백만불 (우리나라 수출)<br>19.8백만불 (우리나라 수입) |
| 교 역 품 | 승용차, TV 등 가전, 기계, 가성소다, 화학원료<br>섬유사, 엽연초, 알미늄제품 |
| 투자교류 | 12건, 2,276만달러 (12위, 우리나라의 진출) ; 전무(국내유치) |
| 교 민 | 150명 (상사원, 선교사 및 가족) |

## 2. 경제동향 및 전망/2003 경제동향

2003년도 불가리아의 실질경제성장율은 4.3%로 집계되어 ‘98년부터 시작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경제 성장세는 거시 경제지표상의 재정, 물가 부문의 안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최근의 실질경제성장율 >**

4.3%(2003), 4.8%(2002), 4.0%(2001), 5.8%(2000), 2.4%(1999), 3.5%(1998), -6.9%(1997) 전체 경제규모를 살펴보면 2003년도 GDP가 미$199억을 기록했으며 미화기준의 GDP규모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달러화의 약세에 기인하고 있음.

총부가가치(GVA) 창출액 기준으로 농업부문은 전년기 1.3%가 감소한데 비하여 제조업부문은 7.1% 증가, 서비스부문은 3.5%의 증가율을 나타냈음.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제조업부문의 회복이 크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물가상승율은 5.6%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의 3.8%의 상승율에 비해 다소 높아진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전반적인 물가수준은 안정화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물가안정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고용시장의 경우 실업율이 연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냈음. 이와 같은실업율의 저하는 정부의 고용촉진책과 함께, 실업자에 대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 축소에 따라 명목적인 실업인구가 감소한 때문으로 분석됨.

재정부문의 경우 다소 적자를 유지해왔으나 2003년도의 경우 BGN1백만의 흑자로전환됨. 지하경제규모의 축소를 위한 노력과 탈세방지책의 강화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규모는 적은 편임. 2004년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0.7% 이내로 IMF측과 합의한 상태임.

국제수지는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무역수지적자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2003년도 무역수지 적자는 미$27억에 달하고 있으며전반적인 관광산업의 호조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개선되고 있음.

## 3. 경제동향 및 전망/2004 경제동향

2004년도 불가리아의 실질경제성장율은 5.6%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이는 정부에서 당초 예상했던 5.0%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경제 성장세는 거시 경제지표상의 재정, 물가 부문의 안정에 기인한 것이며 편으로 불가리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하경제규모 축소화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최근의 실질경제성장율 >**

5.6%(2004), 4.3%(2003), 4.8%(2002), 4.0%(2001), 5.8%(2000), 2.4%(1999), 3.5%(1998), -6.9%(1997) (자료원 : www.stat.bg)

2004년도 총부가가치(GVA) 창출액 기준으로 농업부문은 10.9%로 전년의 9.0%에 비해 높아졌으며 제조업도 28.8%에서 30.0%로 높아진 반면, 서비스업은 62.2%에서 59.1%로 낮아졌음. (자료원 : www.nsi.bg)

2004년도 불가리아 경상GDP는 BGN380억 800만 (미$241억 3000만, 유로 194억 3400만)이며 1인당 GDP는 BGN4,885 (미$3,101, 유로 2,498)로 집계되었음.

물가상승율은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였음. 200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6.1%를 나타내 전년도의 5.6%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의 소비자물가상승율 >**

6.3%(2004), 5.6%(2003), 3.8%(2003), 4.8%(2002), 11.4%(2001), 6.2%(2000)
(자료원 : www.stat.bg)

2004년도에도 고용시장의 경우 실업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이와 같은 실업율의 저하는 정부의 고용촉진책과 함께, 실업자에 대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 축소에 따라 명목적인 실업인구가 감소한 때문으로 분석됨

**< 최근의 실업률 >**

12.16%(2004), 13.52%(2003), 16.27%(2002), 17.88%(2001)

재정부문의 경우 2002년까지 적자 상태에 있었으나 2003년도 중 BGN1백만의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04년도에도 BGN659백만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이는 지하경제규모의 축소를 위한 노력과 탈세방지책의 강화책에 기인하고 있음.

한편 당초 예상보다 경제성장이 높아져 세수익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국제수지는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무역수지적자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2004년도 경상수지 적자는 미$1,806백만으로 전년도의 미$1,856백만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관광부문의 수입 증가로 인해 적자규모가 다소 축소 되었음.

## 4. 한국과의 무역관계

**< 한-불가리아 관계 >**

불가리아의 공산독재정권이 붕괴된 1989년 이듬해인 1990년 3월 양국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1993년부터 한국의 대불수출이 본격화되었음.

불가리아는 한국을 자국경제 개발에 있어 유용한 모델이자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한국기업의 투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따라, 불가리아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물론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이 양호한 편임. 다만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직접 수출보다는 인근지로부터의 간접 수입이 비교적 활발하다는 취약점이 있음.

**< 교역규모 >**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299백만불로 2003년의 75백만불, 2002년의 40.62백만불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폭증하는 상태에 있음. 무역수지는 한국이 약 259백만불 흑자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불가리아 무역구조를 보면 주종 수출품목은 승용차, TV, 전자제품, 무선통신기기, 기계제품등이며 주종 수입품목은 가성소다, 화학원료, 인조필라멘트, 담배, 알미늄제품 등임.

**한국의 대불가리아 교역현황**

(단위:천불,%)

| 연도 | 수 출 | | 수 입 | | 수 지 |
|---|---|---|---|---|---|
| 1984 | 1,171 | 0.0 | 2,055 | 0.0 | -884 |
| 1985 | 495 | -57.7 | 3,090 | 50.4 | -2,595 |
| 1986 | 1,251 | 152.5 | 2,585 | -16.4 | -1,334 |
| 1987 | 1,215 | -2.9 | 2,115 | -18.2 | -900 |
| 1988 | 5,544 | 356.3 | 3,621 | 71.2 | 1,923 |
| 1989 | 17,848 | 221.9 | 11,104 | 206.7 | 6,745 |
| 1990 | 17,700 | -0.8 | 19,749 | 77.8 | -2,049 |
| 1991 | 11,611 | -34.4 | 11,822 | -40.1 | -211 |
| 1992 | 31,282 | 169.4 | 15,991 | 35.3 | 15,291 |
| 1993 | 53,327 | 70.5 | 10,942 | -31.6 | 42,385 |
| 1994 | 31,781 | -40.4 | 21,793 | 99.2 | 9,988 |
| 1995 | 43,596 | 37.2 | 27,895 | 28.0 | 15,701 |
| 1996 | 49,957 | 14.6 | 20,965 | -24.8 | 28,992 |
| 1997 | 32,389 | -35.2 | 24,647 | 17.6 | 7,742 |
| 1998 | 43,622 | 34.7 | 33,223 | 34.8 | 10,399 |
| 1999 | 19,483 | -55.3 | 11,137 | -66.5 | 8,346 |
| 2000 | 22,698 | 16.5 | 9,077 | -18.5 | 13,621 |
| 2001 | 21,557 | -5.0 | 9,745 | 7.4 | 11,812 |
| 2002 | 28,536 | 32.4 | 14,861 | 52.5 | 13,675 |
| 2003 | 57,996 | 103.1 | 18,065 | 21.6 | 39,931 |
| 2004 | 279,014 | 381.1 | 19,829 | 9.8 | 259,185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불가리아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의 성과로 현재의 안정기조 유지 및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중장기 수출전망은 밝은 편임.

특히 ‘93년도에는 대불 수출이 미$53백만으로 최고액을 기록했으나 2004년도 수출액은 자동차 우회 수출의 증가로 미$279백만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앞으로 자동차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불가리아에 대한 수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동차의 경우 2004년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우회수출의 지속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불가리아의 EU가입 추진과 관련 이미 서유럽, 동유럽, 발칸국가들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가격중심의 시장특성을 지니고 있는 특성상 최근의 중국산과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인 요인임.

특히, EU, EFTA와 자유무역협정, CEFTA(중동부유럽 자유무역지대: 폴란드, 체크, 헝가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 리아)가입, 발칸반도국가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몰도바 등 동유럽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는 상황임.

* 예 : ‘98년 부터 EU산 자동차는 무관세, 한국산 자동차는 14-15% 관세부과

불가리아측의 무역통계에 의하면 불가리아의 대한 수입규모는 2004년도의 경우 미$110백만, 수출규모는 미$13백만 정도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대불가리아 수출통계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불가리아의 대한 수출입액 및 전년비 증감율**

(단위: 천불, %)

| 연도 | 수출 | | 수입 | | 수지 |
|---|---|---|---|---|---|
| | 금액 | 증감율 | 금액 | 증감율 | |
| 2002 | 10,239 | | 45,292 | | -35,053 |
| 2003 | 14,101 | 37.7 | 73,696 | 62.7 | -59,595 |
| 2004 | 12,807 | -9.0 | 109,918 | 49.0 | -97,111 |

자료원 : 불가리아 경제부

**<교역여건>**

높은 실업율의 지속, 연금지급재원의 부족,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구매력이 낮으나 제조업의 회복에 따른 신규 투자설비 수요 증대, 원자재 수입조달 증대 등으로 수입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업 호조에 의한 자재 수입 수요 증대도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전반적인 구매력이 낮아 우리나라와의 직교역을 위한 최소주문량 등 거래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근지 및 유럽을 통한 간접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지리적인 여건상 그리스, 터키, 이태리 등이 주요 교역대상국이며 아시아지역과의 교역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임.

EU, CEFTA, EFTA, 터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세르비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은 관세부과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불가리아의 지역별 수출입 통계**

(단위 : 미$백만,%)

| 국가 또는 지역 | 수출(FOB) | | | 수입(CIF) | | |
|---|---|---|---|---|---|---|
| | 2002 | 2003 | 03/02 | 2002 | 2003 | 03/02 |
| 총 계 | 5 692.1 | 7 444.8 | 130.8 | 7 903.4 | 10 753.6 | 136.1 |

| | | | | | | |
|---|---|---|---|---|---|---|
| 동유럽 | 689.2 | 946.2 | 137.3 | 639.5 | 961.2 | 150.3 |
| 체크 | 27.6 | 41.6 | 150.7 | 122.6 | 174.8 | 142.6 |
| 헝가리 | 38.2 | 61.9 | 162.0 | 100.1 | 133.6 | 133.5 |
| 폴란드 | 41.0 | 61.2 | 149.3 | 99.5 | 151.4 | 152.2 |
| 루마니아 | 158.7 | 227.1 | 143.1 | 162.9 | 260.2 | 159.7 |
| 슬로바키아 | 17.9 | 17.7 | 98.9 | 45.1 | 70.7 | 156.8 |
| 슬로베니아 | 24.4 | 29.2 | 119.7 | 45.4 | 66.0 | 145.4 |
| 유고슬라비아 | 173.3 | 248.7 | 143.5 | 24.0 | 33.9 | 141.3 |
| CIS | 238.8 | 264.5 | 110.8 | 1 452.6 | 1 987.3 | 136.8 |
| 러시아 | 91.5 | 104.1 | 113.8 | 1 146.6 | 1 348.9 | 117.6 |
| 우크라이나 | 52.9 | 58.5 | 110.6 | 245.5 | 421.0 | 171.5 |
| OECD | 1 099.6 | 1 324.6 | 120.5 | 1 229.4 | 1 907.3 | 155.1 |
| 터키 | 530.1 | 679.7 | 128.2 | 390.3 | 658.2 | 168.6 |
| 미국 | 270.5 | 330.5 | 122.2 | 172.2 | 273.3 | 158.7 |
| 한국 | 10.2 | 14.1 | 137.7 | 45.3 | 73.7 | 162.7 |
| EU | 3 165.9 | 4 211.8 | 133.0 | 3 967.0 | 5 335.8 | 134.5 |
| 오스트리아 | 95.5 | 150.8 | 157.9 | 165.3 | 239.0 | 144.6 |
| 벨기에 | 275.1 | 453.5 | 164.8 | 110.9 | 147.4 | 132.9 |
| 프랑스 | 303.0 | 378.0 | 124.8 | 445.0 | 606.5 | 136.3 |
| 독일 | 542.7 | 802.6 | 147.9 | 1 128.3 | 1 535.3 | 136.1 |
| 그리스 | 521.2 | 772.9 | 148.3 | 475.7 | 714.9 | 150.3 |
| 이태리 | 874.9 | 1 041.8 | 119.1 | 893.9 | 1 100.7 | 123.1 |
| 네덜란드 | 101.9 | 114.2 | 112.1 | 159.6 | 192.7 | 120.7 |
| 스페인 | 191.9 | 203.1 | 105.8 | 153.8 | 240.0 | 156.0 |
| 스웨덴 | 30.4 | 37.0 | 121.7 | 83.3 | 124.0 | 148.9 |
| 영국 | 165.3 | 188.6 | 114.1 | 206.7 | 268.3 | 129.8 |
| EFTA | 103.4 | 59.7 | 57.7 | 107.9 | 133.5 | 123.7 |
| Candidate countries | 892.2 | 1 175.2 | 131.7 | 976.0 | 1 537.1 | 157.5 |
| 기타국가 | 586.1 | 846.9 | 144.5 | 978.3 | 1 085.1 | 110.9 |
| 이집트 | 27.9 | 43.5 | 155.9 | 4.0 | 4.8 | 120.0 |
| 시리아 | 17.9 | 12.3 | 68.7 | 29.1 | 26.3 | 90.4 |
| 이스라엘 | 43.4 | 42.7 | 98.4 | 18.5 | 19.4 | 104.9 |
| 중국 | 12.4 | 60.4 | 487.1 | 137.4 | 279.4 | 203.3 |
| 대만 | 10.8 | 15.2 | 140.7 | 48.1 | 72.2 | 150.1 |
| 인도네시아 | 3.1 | 8.4 | 271.0 | 74.8 | 101.8 | 136.1 |
| 브라질 | 15.0 | 19.7 | 131.3 | 71.5 | 118.5 | 165.7 |

자료원 : 불가리아국립통계원(NSI;www.nsi.bg)

**불가리아의 품목별 수출입 통계**

(단위 : 미$백만, %)

| 품목분류(SITC) | 수출(FOB) | | | 수입(CIF) | | |
|---|---|---|---|---|---|---|
| | 2002 | 2003 | 03/02 | 2002 | 2003 | 03/02 |
| TOTAL | 5 692.1 | 7 444.8 | 130.8 | 7 903.4 | 10 753.6 | 136.1 |
| Food and live animals | 475.0 | 495.8 | 104.4 | 356.6 | 471.7 | 132.3 |
| Beverages and tobacco | 132.1 | 154.5 | 117.0 | 48.4 | 45.6 | 94.2 |
| Crude materials, inedible (except fuel) | 340.0 | 467.5 | 137.5 | 356.5 | 594.5 | 166.8 |
| Mineral fuel, lubricants and related materials | 559.7 | 622.9 | 111.3 | 1 549.7 | 1 874.4 | 121.0 |
| Animals and vegetable oils, fats and waxes | 16.4 | 13.5 | 82.3 | 48.2 | 44.0 | 91.3 |
| Chemical and related products n.e.c. | 526.6 | 671.1 | 127.4 | 810.9 | 1 071.9 | 132.2 |
| Manufactured goods classified chiefly by material | 1 284.9 | 1 836.3 | 142.9 | 1 618.0 | 2 263.8 | 139.9 |
|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 708.2 | 970.5 | 137.0 | 2 179.5 | 3 087.5 | 141.7 |
|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 1 553.5 | 2 140.9 | 137.8 | 781.1 | 1 084.4 | 138.8 |
| Commodities and transactions n.e.c. | 95.7 | 71.8 | 75.0 | 154.5 | 215.8 | 139.7 |

자료원 : 불가리아국립통계원(NSI;www.nsi.bg)

**< 우리나라와의 무역동향 >**

우리나라는 대 불가리아에서 '92년부터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유지.

'90년대 중반 수출액이 미$50백만('96)에 이르렀으나 이후 불가리아의 경제 불안,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여 '99년도에는 미$19백만으로 감소.

2000년도 이후 교역규모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도에는 수출 미$58백만, 수입 미$18백만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무역흑자**도 최대규모인 **미$40백만**을 기록함.

2004년도 10월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비 562%가 증가한 **미$132백만**, 수입은 9.4%가 증가한 **미$16.5백만**으로 무역수지는 **미$235.5백만**으로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최근 우리나라 대 불가리아 무역추이 및 교역비중

| 연도 | 대 불가리아(미$천) | | | 우리나라 전체 점유비(%) | | |
|---|---|---|---|---|---|---|
| |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 2004 | 279,014 | 19,829 | 259,185 | 0.121 | 0.021 | 0.096 |
| 2003 | 57,996 | 18,065 | 39,931 | 0.022 | 0.007 | 0.266 |
| 2002 | 28,536 | 14,861 | 13,675 | 0.018 | 0.010 | 0.132 |
| 2001 | 21,557 | 9,745 | 11,812 | 0.014 | 0.007 | 0.126 |
| 2000 | 22,698 | 9,077 | 13,621 | 0.013 | 0.006 | 0.116 |
| 1999 | 19,483 | 11,137 | 8,346 | 0.014 | 0.009 | 0.035 |

자료원 : 관세청

**< 대 불가리아 주요 교역 품목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화학공업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이며 이들 세 품목의 비중이 전체 수출의 60% 전후(2003 65%, 2002 63%, 2001 55%)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2004년 들어서서 승용차 수출액이 월 미$2-3천만에 달하는 등 자동차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의 점유율이 85%를 초과하고 자동차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음.

단일 품목으로는 화학공업제품이 가장 비율이 높았으나 2003년도 들어서서는 전기 전자 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아졌으며 금년 들어서서는 승용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04년 10월까지 수출이 증가한 품목을 살펴보면 자동차(약 25배 증가), 가정용 전자제품(68%), 고무제품(29%), 산업용기계(336%), 직물(64%), 전자부품(59.4%), 농산물(201%), 플라스틱제품(75%) 등이며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섬유사(-56%), 정밀화학 제품(-67%), 정밀기계(-6%) 등임.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은 원자재인 광물, 화학공업제품, 일반소비재 등이며 이들 세 품목의 비중도 전체 수입의 60% 전후(2003 75%, 2002 58%, 2001 3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도별로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품목별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음.

화학공업제품의 수입비중이 2003년도에 37.7%, 2004년 1-10월까지는 39%에 이르는 등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임.

소비재의 비중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04년도 1-10월 까지는 다소 하락 불가리아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류의 경우 최근에는 변화없이 연간 미$1백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4년 10월까지 수입이 증가한 품목을 살펴보면 의류(24%), 정밀화학제품(12%), 전자부품(77%), 기호식품(700%)등이며 수입 감소품목은 알루미늄(-80%), 원동기(-19%) 등임.

## 한국의 대 불가리아 품목별 수출

(단위 : 미$천)

| 품목군 | 2004년 | | 2003년 | | 2002년 | |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 839 | 0.30% | 374 | 0.64% | 884 | 3.10% |
| **2. 원 료 및 연 료** | 189 | 0.07% | 125 | 0.22% | 97 | 0.34% |
| **3. 경공업 제품** | 7,059 | 2.53% | 6,112 | 10.54% | 4,249 | 14.89% |
| 가. 섬유원료 | 557 | 0.20% | 477 | 0.82% | 563 | 1.97% |
| 나. 섬유사 | 690 | 0.25% | 1,731 | 2.98% | 812 | 2.85% |
| 다. 직 물 | 2,714 | 0.97% | 1,623 | 2.80% | 1,965 | 6.89% |
| 라. 기타 섬유제품 | 724 | 0.26% | 817 | 0.55% | 237 | 0.83% |
| 마. 의류 | 68 | 0.02% | 14 | 0.02% | 8 | 0.03% |
| 바. 목제품 | 209 | 0.07% | 168 | 0.29% | 30 | 0.11% |
| 사. 가죽, 고무, 신발류 | 1,334 | 0.48% | 850 | 1.47% | 253 | 0.89% |
| 자.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 46 | 0.02% | 10 | 0.02% | 2 | 0.01% |
| 차. 완구, 운동용구, 악기 | 11 | 0.00% | 8 | 0.01% | 2 | 0.01% |
| 카. 기 타 | 705 | 0.25% | 916 | 1.58% | 377 | 1.32% |
| **4. 중화학 공업품** | 270,927 | 97.10% | 51,385 | 88.60% | 23,306 | 81.67% |
| 가. 화 공 품 | 14,891 | 5.34% | 10,244 | 17.66% | 7,272 | 25.48% |
| 나. 철강 및 금속제품 | 969 | 0.35% | 892 | 1.54% | 652 | 2.28% |
| 다. 기계류와 정밀기기 | 11,606 | 4.16% | 6,274 | 10.82% | 3,919 | 13.73% |
| 라. 전기/전자제품 | 13,148 | 4.71% | 9,709 | 16.74% | 4,962 | 17.39% |
| 마. 수 송 장 비 | 229,272 | 82.17% | 23,049 | 39.74% | 5,640 | 19.76% |
| 바. 기 타 | 1,042 | 0.37% | 1,217 | 2.10% | 861 | 3.02% |
| 합계 | 279,014 | | 57,996 | | 28,536 | |

자료원 : 관세청

## 한국의 대 불가리아 수입

(단위 : 미$천)

| 품목군 | 2004년 | | 2003년 | | 2002년 | |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1. 소 비 재** | 4,213 | 21.25% | 3,797 | 21.02% | 2,691 | 18.11% |
| 가. 곡 물 | - | - | 50 | 0.28% | 57 | 0.38% |
| 나. 직접 소비재 | 1,575 | 7.94% | 1,816 | 10.05% | 1,785 | 12.01% |
| 다. 내구 소비재 | 341 | 1.72% | 251 | 1.39% | 162 | 1.09% |
| 라. 비내구 소비재 | 2,297 | 11.58% | 1,680 | 9.30% | 687 | 4.62% |
| **2. 원 자 재** | 11,457 | 57.78% | 11,505 | 63.69% | 9,604 | 64.63% |
| 가. 연 료 | 7 | 0.04% | - | - | - | - |
| 나. 광 물 | 1,185 | 5.98% | 2,923 | 16.18% | 3,823 | 25.73% |
| 다. 경공업 원료 | 1,999 | 10.08% | 590 | 3.27% | 1,441 | 9.70% |

| | | | | | | |
|---|---|---|---|---|---|---|
| 라. 섬 유 류 | 845 | 4.26% | 1,145 | 6.34% | 1,163 | 7.83% |
| 마. 화 공 품 | 7,359 | 37.11% | 6,812 | 37.71% | 2,963 | 19.94% |
| 바. 철 강 재 | 24 | 0.14% | 17 | 0.09% | 62 | 0.42% |
| 사. 비철금속 | - | - | - | - | 125 | 0.84% |
| 아. 기 타 | 38 | 0.19% | 17 | 0.09% | 27 | 0.18% |
| **3. 자 본 재** | 4,159 | 20.97% | 2,763 | 15.29% | 2,566 | 17.27% |
| 가. 기계류와 정밀기기 | 1,214 | 6.12% | 1,358 | 7.52% | 1,489 | 10.02% |
| 나. 전기/전자기기 | 2,656 | 13.39% | 1,270 | 7.03% | 932 | 6.27% |
| 다. 수 송 장 비 | 253 | 1.28% | 134 | 0.74% | 64 | 0.43% |
| 라. 기 타 | 36 | 0.18% | 1 | 0.01% | 80 | 0.54% |
| 합계 | 19,829 | | 18,065 | | 14,861 | |

자료원 : 관세청

**< 한. 불 민간경협위 개최 현황 >**

ㅇ 90. 3. 불가리아 상공회의소 의장단 방한시 제 1차 합동회의 개최(서울)
ㅇ 93. 5. 제 2차 합동회의 개최 (소피아)
ㅇ 94. 1. 제 3차 합동회의 개최 (서울)
ㅇ 97. 6. 제 4차 합동회의 개최 (소피아)
ㅇ 2004.10 제5차 합동회의 개최(소피아)

* 한국측 위원장 : 김희용 동양물산 회장
* 불측 위원장 : Asparouh Karastoyanov

## 5. 출입국/비자/출입국, 비자

**<비자>**

비자발급처는 재외 불가리아 공관, 항공 및 각 국경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임.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단기사증면제협정(외교관, 관용, 일반)이 94.8월 체결되어 관광객은 (90일 이내 체류) 비자가 면제됨. 장기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또는 제 3국에서 최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현지 투자 개인사업자로서 1년 이상의 체재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업체의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10명 미만을 고용할 경우 장기비자 취득이 어려움. 다만 투자금액이 50만달러 이상이면서 불가리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고용수와 관계없이 장기 비자 취득이 가능함. 불가리아 정부는 2004년까지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 규모가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체재 비자를 발급했으나 2005년도부터는 투자금액을 50만 달러로 인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불가리아 구사 능력을 요구하도록 변경하였음.

불가리아 정부는 2004년도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장기체재 취득을 하지 않고 단기 비자면제협정을 이용하여 3개월마다 출국하고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장기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강화하여 적법한 비자 미 취득자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고 있으며 규정된 기한내에 비자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입국비자 취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공항 및 각 세관에서 신청 즉시 발급 가능. 다만 비자종류에 따라 30유로(대외 공관에서 정상 취득)에서 100유로까지(1년간 멀티비자) 비자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공항 및 국경 세관에서 비자 취득시 특별한 구비 서류는 없고 다만 비자신청서와 비자대를 지불하면 됨.

**(비자발급처: 주한 불가리아대사관)**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 2동 723-42
전화: 794-8627
휴일: 토, 일요일, 양국가의 공휴일
업무시간: 10:00-13:00

비자발급처인 주한 불가리아 대사관에서는 장기비자의 경우 일단 불가리아에 입국한 후 인근지 불가리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것을 권하기도 하며 실제로 불가리아에 입국한 후 인근지인 그리스 데살로니기 불가리아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여 발급받는 경우도 있음.

**<출입국 절차>**

출입국에 필요한 특별한 절차는 없음.

입국시 신고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세관검사대를 거치며, 그외에는 대부분 세관검사없이 통관함. 단, 세관원 임의로 선택하여 세관검사를 하므로, Sample, 촬영장비 등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ATA carnet 등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견본을 휴대하는 경우 반드시 견본이라는 증명서를 필요로 함.

또한 현금을 BGN8,000 (4,000유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미신고시 이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반출할 수 없으며 세관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압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귀금속의 경우 금 및 백금의 경우 60그램까지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으며 은의 경우 300그램까지 세관신고 없이 반출입이 가능함.

**<방역>**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음.

**<면세품 보유한도>**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담배 200g, 또는 Cigarillos 100개 중 택1
- 술 1리터와 포도주 2리터, 또는 포도주 2리터와 샴페인 2리터 중 택1
- 향수 50㎖
- 커피 500g, 또는 커피추출액 200g
- 차 100g, 또는 차추출액 50g

위 한도량은 1개월이내에 2회 입국하는 경우 20%가 감소되고, 총 면세반입품목가액은 1인당 100유로 (미성년자의 경우 50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

물품 1개의 가격이 1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물품 여러개의 가격이 1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관세 및 부가세 과세 대상임.

비상업용물품으로 물품가액이 100유로를 초과하고 1500유로 이하인 경우 관세는 5%가 적용되고, 비상업용물품으로 물품가액이 15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율표에 근거한 관세가 부과됨.

**<출입국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 불가리아 입국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재숙소를 인근지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5년 2월 1일부터는 5일 이내로 다소 완화. 체재지 미신고시 적발될 경우 BGN100(50유로)에서 BGN1000(500유로)까지의 벌금이 부과됨.

호텔에 투숙시에는 외국인 숙소 신고 업무를 호텔측에서 대행해주므로 별도로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개인적으로 아는 집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만 출국시 문제없이 출국할 수 있음. 현재 출국시에 해당 신고서를 잘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제도상으로는 신고제도가 유효하므로 미신고시 출국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거주지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없음

**<항공편>**

소피아에는 유럽의 주요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데 Air France, Alitalia, Austrian Air, British Airways, Czech Airlines, Aeroplot, LOT, Lufthansa, Malev, Olympic, Swissair, Turkish Airline, Hemus Air, 그리고 Bulgarian Air 등임.

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대부분 서유럽 도시를 경유하며 통상적으로 해당 서유럽에서 1박한 후 다음날 소피아로 연결되고 있음. 다만, 일부 항공노선(모스크바경유 Aeroplot, 중국경유 Austrian Air등)의 경우 당일 소피아로 연결됨.

불가리아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서유럽 주요 도시 경유시 서유럽 도시에서 체재할 필요없이 당일 연결되며 한국에는 다음날 도착하게 됨.

Bulgarian Airlines은 국내선인 소피아-바르나, 소피아-부르가스에 취항하며 다수 유럽, 중동 수도에 취항하고 있음.

직항편이 운행되는 주요 도시로는, 부카레스트(루마니아), 아테네(그리스), 이스탄불(터키), 밀라노 및 로마(이태리), 취리히(스위스), 런던(영국), 파리(프랑스), 모스크바(러시아), 키에프(우크라이나), 마드리드(스페인), 텔아비브(이스라엘), 바르샤바(폴란드), 프라하(체크), 부다페스트(헝가리), 프랑크푸르트 및 뮌헨(독일), 비엔나(오스트리아) 등임.

소피아공항 홈페이지(www.sofia-airport.bg)에서 소피아와 주요 도시한 항공일정을 검색할 수 있음.

**<소피아 교통편>**

소피아는 버스, 트램, 트롤리 통합시스템으로 승차권은 0.5 BGN(불가리아레바)이며 신문가판대(키오스크), 승차권매표소에서 구매하며 짐이 많은 경우에도 추가 티켓하나가 필요함.

버스, 트램, 트롤리버스 등에 승차하는 경우 표를 검표기에 넣어 탑승시간을 기록해야 함. 유효시간은 1시간이며 수시로 검표원이 탑승하여 유효한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한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승차권 가격의10배에 해당하는 벌금(BGN5.00)을 부과함.

그러나 버스, 트램, 트롤리 버스 등은 노선을 알기가 어려우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택시는 바가지요금이 많으므로 택시회사 중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 OK택시(택시 외부에 OK로고가 새겨져 있음)를 탑승할 것을 권유함. 소피아 공항에는 OK택시 창구가 있으며 입국장을 나오면 OK택시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기 권장함. 택시요금은 야간 할증요금(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요금이 저렴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6. 환전

불가리아 화폐단위는 레브(Lev)이며 복수의 경우 레바(Leva)라고 부름. 불가리아 화폐의 약칭은 BGN이며 1999년 화폐가치의 절상 이전 화폐는 BGL로 표기함.

불가리아 지폐는 100, 50, 20, 10, 5, 2레바 및 1 레브가 있고 동전은 1레브, 50, 20, 10, 5, 2, 1 스토팅키(Stotinki)가 있음. 1레브는 100스토팅키임.

1999년부터 IMF에 의해 레바는 독일마르크화에 고정되어 있었으나 2002년 유럽에 유로화가 도입되면서 1유료=BGN1.95583으로 고정되게 되었음. 레바와 미달러화와의 환율은 유로화와 달러화간 환율에 의해 중앙은행에서 매일 지정 고시함. 2005.4.5 현재 약 미$1=BGN1.50이나 환전소에 따라 수수료 부과 여부 및 적용환율의 차이가 많으므로 미리 환율을 확인한 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환전은 은행 뿐만아니라 시내 일반 환전소에서 가능하며, 우체국, 은행에서는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요구하지만 시내 환전소에서는 여권 등 신분증 없이 환전할 수 있음. 단,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개인 환전자로부터 환전하지 말아야 함.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개인 환전자의 경우 위폐나 신문조각 등을 이용하여 속이는 경우가 많음. 또한 민간 환전소라 할지라도 환율을 꼭 확인하여야 함.

공항환전소, 민간환전소, 은행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환전하며 민간환전소 환율이 가장 유리함. 환전시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실제액수보다 적게 줄 수도 있으므로 환전하면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함. 또한 환전상에서 서류에 서명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환율과 최종 금액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서명하여야 함.

일부 환전소에서는 1999년 화폐가치 절상 이전의 구화폐로 환전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함. 또한 일부 환전소에서는 환율을 혼동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인 환율이 1.50이라고 할 경우 환전소 밖에 고시한 환율을 1.155으로 표시하여 다른데 비해서 높은 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경우임. 따라서 환전소 밖에 고시된 환율의 소수점 자리수 및 숫자를 확인하여 속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환전소는 대부분 휴일이나 야간에는 문을 닫으나 시내 일부 환전소의 경우 24시간 영업하는 경우도 있음. 주말에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공항 환전소에서 소액(20달러정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항에서 환전하는 경우 입국장의 환전소는 환율차이가 매우 크며 출국장의 환율은 정상적인 환전소 환율을 적용하고 있음. 도착장과 출국장의 거리는 50미터 정도이므로 가능하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환전하는 것을 권함.

불가리아 중앙은행에서 고시하는 주요 통화에 대한 그날그날의 환율 정보는 불가리아 중앙은행 홈페이지 (www.bnb.bg)에서 확인할 수 있음.

## 7. 기후

보통적인 대륙성기후로 4계절이 뚜렷하며 연평균 기온은 섭씨 10.5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650㎜임.

지역적으로 평지대와 산악지대의 기후차이가 크고 4계절이 뚜렷함. 여름의 흑해연안 지역은 소피아에 비해 기온이 높으며 맑은 날씨가 많은 편임. 특별하게 우기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에 비가 자주 내리는 편임.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장마기간은 없음. 가끔 여름에 큰 우박이 내려, 농작물이나 자동차 등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함.

최고기온 월 16—27C, 최저기온 월 -4—2C 임.

소피아의 경우 해발 550㎜ 이상의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분지에 위치해 있어 날씨 및 기온의 변화가 비교적 심함.

- 겨울에는 영하 15도 전후로 떨어지고 눈이 많이 내림.
- 봄에는 비가 자주 내리며 비가 내리는 경우 기온이 많이 내려감.
- 여름에는 건조하며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나 습도가 낮아 쾌적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음. 다만 여름에 1주일 정도는 열대야 현상처럼 습도가 높고, 무더운 기분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
- 가을에는 비교적 맑으나 고지대에 위치한 특성상 날씨 변화가 많은 편임.

불가리아의 봄은 일년 중 날씨변화가 가장 심하며 해발 1000미터 이상 지대에는 4월 중순에도 눈이 내릴 때가 있음. 첫눈은 10월 하순에서 11월 초까지 내리는 편이며 가끔 10월 초에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음. 또한 불가리아의 산악지대에서는 3월과 4월중순까지 스키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쌓임. 자동차로 지방을 여행하는 경우 급격한 날씨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도시 지역에는 안개가 심하게 끼는 경우도 있음.

불가리아의 여름은 비교적 덥고, 습도가 낮음. 그러나 산간지역의 경우 해발이 높은 곳에서는 기온이 내려갈 수 있음. 3, 4월에는 비가 오고 날씨 변화가 많지만 6-8월 중에는 비교적 기온이 높고 맑은 날씨를 보임. 다만 가끔 5-6월 경 갑자기 직경 3-4㎝의 우박이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 작물 및 차량, 설비 등에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함. 여름엔 흑해해안 지역은 휴양객으로 매우 붐비며 일부 산악지대의 숙박시설 등도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편임.

불가리아의 가을은 상당히 짧은 편임. 9월초까지 흑해해안에서 휴양을 하기도 하지만 9월 중순이 되면 해수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온이 내려감. 10월에 첫눈이 내리는 것이 일반적임. 산악지대의 단풍은 10월말이 되면 사라지며 11월이 되면 겨울로 접어든다고 할 수 있음.

겨울에는 지역적으로 폭설이 내려, 교통이 두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따라서 겨울에 지방으로 여행하는 경우 일기예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또한 내륙지방을 자동차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폭설에 대비한 장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

**(방문시 복장)**

ㅇ 겨울에는 반드시 방한복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여름의 경우 긴옷은 거의 필요없으나 갑자기 추워질 수 있으므로 긴소매 옷을 최소한 한가지 준비하여야 함.
ㅇ 봄과 가을에는 기온변화가 많으므로 반드시 두꺼운 옷을 준비하여야 함.
ㅇ 여름이라할지라도 산악지역에서 머무는 경우 긴옷을 준비하여야 함.
ㅇ 여름에는 모기 등 충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8. 공휴일

| 공휴일 | 날짜 |
|---|---|
| 신정 New Year | 1.1 |
| 내셔널 데이 National Day<br>- 1878년 오스만 터키로부터의 독립을 기념 | 3.3 |
| 부활절 Orthodox Easter Monday<br>(2005년도의 경우 5.2) | 4.12 (2004) |
| 노동절 Labor Day | 5.1 |
| St.George's Day | 5.6 |
| 통일기념일 | 9.6 |
| 독립기념일 | 9.22 |
| 성탄절 | 12.24-26 |

**<임시휴일>**

공휴일 사이에 평일이 하루 있는 경우 대부분 이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통상 해당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다음 주 토요일은 근무일로 지정함.부활절이나 5월초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거의 1주일간 휴무하는 경우도 있음.

(2005년도 임시공휴일)

- 3월 4일(금)
- 5월 23일(월)
- 9월 5일(월)
- 9월 23일(금)

**<여름휴가>**

통상적으로 7월 중순부터 여름 휴가가 시작되지만 대부분 8월 중 여름휴가를 지내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는 업체의 접촉이 매우 어려움. 또한 많은 사람들은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터키, 그리스 등의 해안도시 휴가시즌이 끝나는 9월 중에도 이들 지역으로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 9월 중순까지도 정상적인 사업협의가 어려움.

**<성탄절 휴가>**

통상적으로 12월 23일부터 정교의 성탄절인 1월 6일까지 정상적인 사업협의가 불가능하고 12월 24일부터 연초(1월 2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음.

**<불가리아 근로자의 휴가>**

노동법상 8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일 기준 2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무일 기준 20일은 4주간이며 1회의 휴가기간은 최소 근무일 기준 10일 이상이어야 함.

그외에도 노동법상에서 정한 휴가가 상당히 많으며 학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국가 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25일 이상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휴가가 상당히 많은 편임.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여름휴가 2-3주, 성탄휴가 1-2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9.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시차>**

GMT 표준시보다 2시간 앞섬. BST = GMT + 2

한국과의 시차는 7시간(하계 섬머타임기간 6시간)임.

- ㅇ 한국시간= 불가리아시간 + 7시간
- ㅇ 불가리아시간 = 한국시간 – 7시간
- ㅇ 섬머타임 기간 : 3월 마지막 주 일요일-10월 마지막주 토요일
  한국시간=불가리아시간 + 6시간, 불가리아시간=한국시간 – 6시간
  2005년의 경우 3월 27일-10월 29일

**<근무시간>**

주 5일, 일일 8시간 주당 40시간임.

ㅇ 정부기관 및 은행: 08:30-16:30
- 은행의 경우 17:00까지 영업하지만 당일 송금 등의 업무처리는 15:30에 종료 (당일 타은행계좌로 송금이 가능한 시간은 은행마다 다소 다르게 운영함)
- 공무원의 경우 신축근무제가 적용되며 사전에 약속하여야 함

ㅇ 기업: 09:00-17:00
-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 민간기업의 경우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

ㅇ 생산현장 : 07:00-16:00
- 생산공장의 경우 아침일찍 근무를 시작하는 경향이 강함
- 그러나 개별 공장 근무시간은 각 기업별로 다름

**<영업시간>**

ㅇ 상점 : 매일 10:00-20:00
- 통상적으로 일요일에도 개점하는 경우가 있음
- 대형슈퍼마켓의 경우 연중 무휴 개점

ㅇ 식당 : 통상적으로 밤 11시까지 영업
- 통상적으로 일요일에도 영업하나 일부 식당은 일요일 휴무함
- 성탄절, 부활절에는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아니함

ㅇ 디스코텍 : 통상적으로 밤 10시 또는 11시에서 다음날 새벽5시까지 영업

불가리아에는 24시간 편의점은 거의 없으며 일부 24시간 운영 주유소에서 영업함.

**<여름휴가>**

공무원 들의 경우 대부분 8월에 집중되어 있으나 7월 중순부터 휴가 시작되고, 휴가일수는 근무일 기준 연간 20일이며 따라서 1개월 정도가 됨.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아예 휴가기간 동안 사무실 폐쇄(약 1개월 정도)하고, 일부 근로자의 경우 여름휴가 2-3주, 겨울휴가 1-2주를 사용함.

## 10. 교통/통신/교통,통신

**<교통수단>**

시내 교통수단으로는 택시, 버스, 트롤리버스, 전차(트램), 지하철 등이 있음.

택시요금은 자유화되어 있어 택시 회사마다 다르므로 승차시에는 유리창에 적혀있는 요금 체계를 확인하여야 함. 통상적으로 기본요금은 택시 유리창에 부착되어있는 요금표의 가장 윗 줄에 표시된 금액이 ㎞당 요금으로 이 요금이 0.39레브(평상시요금)나 0.45레브(야간 할증요금)로 되어 있는 택시를 탑승하면 됨.

요율표는 보통 두 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왼쪽 보다 작은 숫자는 낮시간대 요금, 오른쪽의 보다 큰 숫자는 야간 할증요금을 나타내고 있음. 요금표의 첫 줄에 표시된 기본요금 외에 분당, 거리당 요금 등이 제시되어 있음. 요금표의 첫 줄에 표시된 기본요금이 0.80레브나 1.0레브로 적혀 있는 택시는 요금이 매우 높은 택시임.

야간 할증요금 적용시간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이며 통상적으로 콜을 할 경우 콜 요금으로 0.40레브가 추가됨.

콜택시는 OK택시가 신뢰도가 높고 안전하며 근처에서 OK 택시를 발견할 수 없는경우 호텔이나 식당 등에 요청하여 OK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함. 택시를 부를 때에는 반드시 목적지를 알려주어야 함. 늦은 야간에 운행되는 택시의경우 바가지 요금 등에 주의하여야 함. 일부 택시의 경우 미터기를 수동으로 조작가능한 경우도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로를 우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OK택시 전화번호 : 973-2121 (영어 구사 가능한 사람이 근무)

택시의 경우 고유한 3자리 숫자 번호가 있으므로 승차시에는 동 택시번호를 기억해두면 사후 문제 발생시 참고가 될 수 있음. 그러나 귀중품을 택시에 두고 내리는경우 해당 고유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짐칸에실은 짐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도 되찾기가 어려우며 일부 짐을 내려주지 않고 도망가는 택시사고도 발생한 바 있음.

소피아를 벗어난 도시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항상 요금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특히 관광지에서의 택시요금은 소피아의 택시요금에 비해 아주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미리 택시요금을 확인하고 승차할 필요가 있음.

지하철, 버스 및 트램, 트롤리버스 등은 승차 후 1시간 유효한 표를 정류장에서구입할 수 있으나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소매치기 등을 조심해야 함. 장기 체류자의 경우 월간 승차권, 트램과 버스간 연계승차권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10회 사용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버스, 트롤리버스, 트램, 지하철 등의 1회 승차권은 0.50 레바이며 무임승차 적발시에는 5레바를 벌금으로 지불하여야 함. 시내에는 소위 1레브 마이크로버스가 있는데 이는 노선 버스로 탑승구간에 관계없이 요금이 1레브임.

비교적 운행되는 시간간격이 짧아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음. 다만 노선을 알아야 하므로 처음 도착한 외국인은 이용하기가 어려움. 지하철의 경우 현재 1개 노선 5개역구간만 운행되고 있으며 현재 지하철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전화>**

호텔의 국제전화요금은 매우 높으며 호텔 로비 환전소(리셉션)나 비지니스센터에서, 또는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중전화카드 카드(500펄스기준 26레바)를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KIOSK에서 공중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불가리아 공중전화는 동전용과 카드용으로 구분되며 동전용은 0.50레바 동전을 사용하여야 하고 카드용은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Mobika에서 운영하는 Bluephone 과 Bulfon에서 운영하는 Orangephone임. Bluephone과 Orangphone은 공중전화기 색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화카드는 각각 적합한 카드를 이용하여야 함.

호텔의 경우 국제전화카드(Net Solution Card)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호텔 체재시에는 리셉션에 문의하는 것이 좋음.

**(공중전화 이용)**

공중전화용 동전(우체국에서 판매)을 투입구 위에 올려놓고 다이알을 돌림. (상대방이 수화기를 들면 자동투입)

공중전화는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난 것이 많고, 공중전화는 디지탈 방식전화(7자리 이상 전화번호)과 아날로그 방식의 두 종류가 병용되고 있음.

**(휴대전화)**

불가리아에서의 휴대전화는 GSM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여행자들의 경우 공항에서 임대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음.

휴대전화 서비스 업체는 Mobiltel과 Globul 두 회사가 있으며 가입자수는Mobiltel이 약 80% 정도를 차지함. (제3이동통신서비스업체가 2005년 6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

**<국내에서의 이동>**

국내선 항공은 흑해연안의 Varna와 Bourgas 등 2개 도시에 연결되고 있으며 여름에는 이들 두 흑해연안도시에 관광객전용 국제선이 연결되고 있음.

소피아공항에서 흑해연안의 Varna와 Burgas 공항까지는 40분 정도가 소요됨.

국내에서의 이동은 철도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철도에 비해 버스 이용이 편리함. 철도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부 시설도 지저분한 편임. 버스의 경우 비교적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시간이 단축되고, 운행시간 간격도 짧은 편임. 그러나 전반적인 도로망이 열악하여 버스여행의 경우에도 이동거리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임.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도로사정이 열악하고 비교적 운전습관이 험악하여 어려움. 도로는 보수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표지판이 키릴어로 되어있어 불가리아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목적지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우체국>**

우체국은 각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비교적 편리한 편이고, 우체국의 경우 대부분 점심시간에는 문을 닫음. (12시-1시)

일정 중량 이상의 소포는 중앙우체국에서 찾을 수 있음.

EMS 발송은 중앙우체국에서만 가능하나 한국으로의 EMS 발송은 불가능함.

**<인터넷 환경>**

인터넷 카페는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간당 이용료는 대체로 1유로 수준임.

일부 호텔의 경우 자체 LAN 케이블을 객실에 연결해 놓고 있어 LAN 카드가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를 휴대하는 경우 즉시 이용 가능함.

시내에는 560여대의 컴퓨터를 갖춘 대형 PC방도 설치되어 있음.

개인가정에서는 주로 모뎀을 이용하여 접속하거나 케이블TV 회선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음.

## 11. 유용한 연락처

**<무역관>**

- 주소 : B519, Interpred-WTC, 36 Dragan Tsankov Blvd., Sofia 1057
- 전화 : ++359-2-969-5030/31/32/34
- 팩스 : ++359-2-969-5033
- 현지직원

1. 김종진 (Kim Jong Jin)
   직통전화 : ++359-2-969-5037
   전자우편 : branch@kotra-sofia.org
2. 도브린카 코토바 (Miss. Dobrinka Kotova) : 영어/프랑스어 가능
   직통전화 : ++359-2-969-5032
   전자우편 : research@kotra-sofia.org
3. 게오르기 코스토프(Georgi Kostov) : 영어/일본어 가능
   직통전화 : ++359-2-969-5031
   전자우편 : marketing@kotra-sofia.org

**<대사관>**

- 주소 : 7A Fl., Interpred-WTC, 36 Dragan Tsankov Blvd., Sofia 1057
- 전화 : ++359-2-971-2181

ㅇ 팩스 : ++359-2-971-3388
ㅇ 직원
1. 정무경제담당 : 우성규 참사관
2. 영사 : 박정민 서기관

**<한인회>**

ㅇ 회장 : 김경작
- 전화 : ++359-2-971-8626

ㅇ 총무 : 박성태
- 전화 : ++359-2-868-7091
- 휴대전화 : ++359-898-447-837

**<주요호텔>**

ㅇ Hotel Sheraton (별 5)
- 전화 : ++359-2-981-6541
- 팩스 : ++359-2-980-6464
- 주소 : pl. Sveta Nedelya 5, 1000 Sofia
- 무역관할인요금 : 160유로(아침식사, 세금, 봉사료 포함)

ㅇ Hilton Hotel (별 5)
- 전화 : ++359-2-933-5000
- 팩스 : ++359-2-933-5111
- 주소 : bul. Bulgaria 1, 1421 Sofia
- 무역관 할인요금 : 140유로(아침식사, 세금, 봉사료 포함)

ㅇ Kempinski Hotel Zografski(별 5)
- 전화 : ++359-2-969-2222
- 팩스 : ++359-2-969-2223
- 주소 : 1 Bulgaria Blvd., Sofia 1421
- 무역관 할인요금 : 120유로(아침식사, 세금, 봉사료 포함)

ㅇ Princess Hotel (별 4)
- 전화 : ++359-2-933-8888
- 팩스 : ++359-2-933-8777
- 주소 : bul. Maria Luiza 131, 1202 Sofia
- 무역관 할인요금 : 40유로(아침식사, 세금, 봉사료 포함)

**<여행사>**

ㅇ LEE ’s KOR-BUL
- 대표 : 이상종
- 전화/팩스 : ++359-(0)2-987-7849
- 휴대전화 : ++359-(0)888-551-711

○ JIKO Tour
- 대표 : 민지홍
- 전화/팩스 : ++359-(0)2-840-1259
- 휴대전화 : ++359-(0)888-692-583
- 홈페이지 : www.jikotour.com

**<한국식당>**

○ Korean House
- 전화 : ++359-(0)2-963-0365
- 주소 : 34 Elemag Street, Izgrev, Sofia

**<현지진출 한국업체>**

○ 현대중공업(주) 현지법인
- 법인장 : 구경본
- 전화 : ++359-(0)2-938-1062
- 팩스 : ++359-(0)2-936-0742

○ 삼성물산(주) 사무소
- 전화 : ++359-(0)2-971-3389
- 팩스 " ++359-(0)2-971-3386
- 사무소장 : 이장직

○ 현대종합상사 사무소
- 전화 : ++359-(0)2-708-118
- 팩스 : ++359-(0)2-708-424
- 사무소장 : 칼린 다미아노프(Mr. Kalin Damianov)

○ LG상사 사무소
- 전화 : ++359-(0)2-931-1666
- 팩스 : ++359-(0)2-931-1680
- 사무소장 : 루멘 라덴코프(Mr. Roumen Radenkov)

○ 삼성전자(주) 사무소
- 전화 : ++359-(0)2-971-3796
- 팩스 " ++359-(0)2-971-3796
- 사무소장 : 닉 이코노모프(Mr. Nick Iconomoff)

**<한국교포기업인>**

○ HKC Ltd : 봉제업
- 전화 : ++359-(0)2-846-7062
- 팩스 : ++359-(0)2-846-7082
- 대표 : 장희관

○ Choice Ltd : 식품/직물무역업
- 전화 : ++359-(0)2-868-7091
- 팩스 : ++359-(0)2-962-4962
- 대표 : 박종태

○ KMC Consulting : 정착 및 경영자문
- 대표 : 김경작
- 전화 : ++359-(0)89-9912-407

○ Korea Motor Service : 자동차정비 및 서비스
- 전화 : ++359-(0)887-981-299
- 대표 : 손진석

○ Korea Motor : 자동차정비 및 서비스
- 전화 : ++359-(0)888-675-597
- 대표 : 여동익

○ Korbul Ltd : 자동차부품수입 판매
- 전화 : ++359-(0)2-980-5692
- 대표 : 허성춘

○ Auto Bulgaria Ltd :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 판매
- 전화 : ++359-(0)888-973-735
- 대표 : 권영광

○ K&C Co., Ltd : 무역
- 대표 : 최 원석
- 전화 : ++359-(0)2-973-3037

○ 민박/하숙
- 전화 : ++359-(0)2-971-5173

**<종교 관련>**

○ 기독교 한인교회
- 전화 : ++359-(0)2-945-5741
- 팩스 : ++359-(0)2-376-569
- 목사 : 강태기

○ 천주교 영어미사
- 장소 : 5 Oborishite Street, Sofia
- 시간 : 일요일 오전 11:00

○ 외국인 개신교 영어 예배
- 장소 : Interpred-WTC, 36 Dragan Tsankov Blvd., Sofia
- 시간 : 일요일 오전 11:00

**<기타 유용한 전화번호>**

ㅇ 경찰 : 166
ㅇ 앰블런스 : 150
ㅇ 화재 : 160
ㅇ 전화안내 : 144(국내), 0123(국제)
ㅇ 공항안내 : 937-2121
ㅇ 열차안내 : 31111
ㅇ 카드분실신고 : 986-4544
ㅇ 교통사고신고 : 66-5060

**<주요식당>**

ㅇ Chevermeto : 불가리아 전통식, 전통 춤, 노래 공연
- 전화 : ++359-(0)2-963-0308
- 주소 : 31 Cherni Vrah Blvd., Sofia

ㅇ Captain Cook : 생선요리 전문 식당
- 전화 : ++359-(0)2-954-9098

ㅇ Panorama : 불가리아 전통식 및 유럽식
- 전화 : ++359-(0)2-969-2440
- 주소 : Kempinski Hotel, Sofia

ㅇ Sakura : 일본식
- 전화 : ++359-(0)2-969-2420
- 주소 : Kempinski Hotel, Sofia

ㅇ Sushi Bar : 일본식
- 전화 : ++359-(0)2-943-4004
- 주소 : National Library, Sofia

## 12. 여행시 유의사항

**<치안문제>**

폭행, 강도 등 강력범죄는 빈발하지 않으나 소매치기 등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복잡한 시내에서 가방이나 지갑 등에 대해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거리에서 집시들을 흔히 볼 수 있는 바 길거리에서 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일부 유색인종에 대해 반감을 지니고 있는 그룹도 있으며 이들과는 마찰을 회피할 필요가 있음.

조직범죄집단간의 총기 및 폭발사건 등이 가끔 발생하고 있으며 범행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가능한한 접근하지 말아야 함. (유흥업소, 식당 등)

리셉션 등 행사에 참석하거나 혼잡한 지역에서는 소지품에 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녁시간에는 가능한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으며 유흥업소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바가지요금 등에 주의 하여야 함.

현금 및 귀중품 등은 호텔의 세이프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갑 등 휴대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함. 특히,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며 접근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며 이들이 주는 음식물류는 먹어서는 안됨. (수면제를 사용한 강도 우려)

야간 택시 승차시 바가지 요금에 주의 (요금미터기 조작, 우회 등).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OK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OK택시라고 하더라도 사기 가능성은 있음.

불가리아의 경우 이라크 문제와 관련 적극적인 미국 지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테러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으므로 여행하는 경우 테러에 대비한 주의가 필요함.

자동차 여행자의 경우 자동차 도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차량에서 하차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열쇠를 빼고, 문을 잠그어야 함. 자동차 열쇠를 그냥 차에 두고 하차하는 경우 도난될 가능성이 높음.

**<의료 건강 문제>**

의료수준은 중간정도로 평가되나 의료자재가 구식이고 병원 시설이 매우 열악하므로 지병이 있는 경우 인근지 서유럽으로 긴급 이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의약품 구입시 처방전이 필요하나 사소한 약품의 경우 시내의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구입 가능함. 가정상비약 -감기약, 배탈약, 항생제, 연고류- 등은 국내에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거리에 주인 없는 개가 많으므로 이들에 주의하여야 하며 물렸을 경우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함.

**<음료수>**

불가리아의 경우 수질이 좋고 시내 또는 교회 주변에 음용수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들 지하 온천수를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수도의 경우 수도관이 오래돼 불순물이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음. 상점에서 판매되는 광천수를 마시는 것이 안전함.

대부분 시판되는 광천수는 탄산이 포함되지 않은 광천수이며 탄산이 포함된 광천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종업원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음.

**<제품 구입시>**

대부분 상점은 정찰제를 실시하므로 가격인하 협상 등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가격이 붙어있지 않은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바가지 요금에 주의해야 함.

<식당에서>

봉사료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나 음식값의 5% 전후로 봉사료 지불. 단, 계산서상에 봉사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줄 필요가 없음.

잔돈을 거슬러주는 경우 통상적으로 1레브 미만의 잔돈은 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므로 스토팅키 단위의 거스름돈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함.

식당, 바 등의 경우 손님이 주문하지 않은 것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등도 빈번하게 발견되므로 청구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지불할 필요가 있음.

<공원에서>

거리에는 주인 없는 개, 고양이 등 애완용 동물이 많으며 이른 아침 산책하는 경우 이들 거리에 있는 맹견을 주의할 것. 불가리아에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개가 무척 많으며 이중에는 맹견도 있음. 특히 겨울에 먹을 것이 없고 해가 짧은 경우 이른 아침에 거리를 산책하거나 조깅하는 것은 위험함.

봄부터 여름까지 공원, 풀밭, 산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 흡혈벌레(tick)에 주의 하여여 함. 흡혈벌레의 경우 살갗을 파고 들어가며 바이러스를 보유한 흡혈벌레에 물리는 경우 치명적이기도 함. 흡혈벌레에 물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병원에 가서 벌레를 제거해야 하며 비전문가가 제거하다다 벌레의 일부가 살갗에 남아 있는 경우 위험함.

<매춘>

소득수준이 낮아 많은 여성들이 매춘에 관계되고 있으며 도시내 유흥가 또는 도로변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음.

불가리아에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는 공식적으로 약500명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실제 환자는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매춘행위는 절도 등의 범죄행위와 연결될 수 있음.

<화장실>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유료임. (사용료는 30에서 50 스토팅키)

유료공중화장실에는 대부분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으나 무료공중화장실의 경우 화장지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이 준비하여야 함.

<신용카드사용>

대중 음식점에서나 소매점에서는 대부분 현금결제만 수용하며 신용카드는 고급음식점이나 고급 상품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상점의 경우 대부분 출입문에 결제 가능 신용카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

소피아의 유명한 쇼핑거리의 상점들이나 유흥업소에서는 대부분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함.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어 사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를 필요로 함.

별3개 이상의 중급 및 고급 호텔 대부분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지방도시에 가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식당이나 상점이 극히 적은 편임.

신용카드 ATM 기기는 은행 및 대형건물내에 설치되어 있어 현지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13. 관광명소

**< 릴라(Rila) 사원 >**

소피아 남동쪽 120㎞, 릴라산맥 깊은 산림속에 위치, 500년 터키 지배동안 불가리아 문자 및 문화를 지켜온 불가리아인들의 영혼의 고향임.

발칸반도에 있어서 정교 수도원의 총 본산. 10세기에 최초 건축, 현재는 19세기 중반 보수 개축된 모습이며 정교한 건축술, 벽화, 성화, 고문서, 나무십자가로 유명. 특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나무십자가는 제작자가 완성한 후 실명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짐

불가리아내 7개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중 하나임.

**< 소피아(Sofia) 시내 >**

**(알렉산더 네프스키 사원)**

네오비잔틴 양식의 발칸반도 최대의 사원 (사원 내부가 1,300㎡로서 5,000명 집회 가능)임.

불가리아의 해방을 위해 터키와 싸운 러시아 병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882년 기공되어 1924년 완성됨. 내부의 벽은 러시아, 불가리아 유명 화가들이 그린 성화로 가득함.

지하실에는 고대와 중세 불가리아의 유물, 성화를 전시하였음.

**(법원건물)**

1940년 최고 재판소로 건축한 장엄한 건물이고, 입구에 사자상이 있음.

1984년 국립역사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선사시대로부터 1912년까지의 불가리아 중요 문화재를 전시하였으나 2000년도에 박물관이 이전하고 법원건물로 사용 중임

**(국립 미술관)**

불가리아 르네상스 양식에 바로크 양식을 가미한 황색 건물임.

터키로부터 해방후 왕궁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서쪽 절반은 국립박물관, 동쪽 절반은 민속 박물관으로 사용

**(성 게오르기 교회)**

쉐라톤 호텔의 정원에 있는 소피아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의 하나임.

3-4세기경 이교도 사원으로 건축된 것으로 추측되며, 로마시대에 교회로 사용되다가 터키 지배시에는 회교 사원으로 사용됨

**(구 공산당 본부)**

시내 중심에 위치한 큰 건물이고, 1989년 민주화 시위때 수난을 당하였으나 현재는 의원회관으로 사용

**('세르디카'의 유적)**

'세르디카'는 비잔틴 시대 소피아의 지명이고, 구 공산당 본부앞 광장의 지하에서 5-6세기경의 성벽과 정문 유적이 발견됨(현재는 폐쇄중)

**(성 페트카 지하교회)**

구 공산당 본부앞 광장의 지표위에 지붕이 나와있는 교회이고, 터키 지배당시인 14세기에 건축

**(성 네델리야 교회)**

쉐라톤 호텔앞의 검은색 불가리아 정교 교회이고, 1923년 이곳에서 당시 국왕 보리스 3세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함

**(반야 바시 모스크)**

터키 지배 당시인 1575년 건축된 회교 사원임.

**('비토샤' 산)**

소피아시 남쪽에 위치한 해발 2,290㎜ 의 산이고, 산 중턱의 '코피토토' 전망대에서는 소피아 시가를 한눈에 볼 수 있음.

최고봉 '체르니 브르흐' 바로 밑에 '알레코'까지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겨울에는 소피아 시민들의 스키장으로 이용함.

**(보야나 교회)**

불가리아내 7개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중 하나이며, 교회내 벽화가 유명함.

**< 지방명소 >**

**(벨리코 터르노보 -Veliko Turnovo))**

소피아에서 3시간 거리에 위치함. 11-14세기 불가리아의 수도로서 독특한 자연 경관과 전통 가옥으로 유명함.

**(플로프디프 -Plovdiv)**

소피아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함.

불가리아 제2의 도시로서 로마시대의 원형극장이 남아 있음

**(카잔룩 -Kazanluk)**

소피아에서 3시간 거리에 위치함.

장미의 계곡으로 유명하고, 장미축제는 매년 6월 첫째주 토-일요일에 개최되며 장미 축제 기간 중 일본 단체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임.

**(코프리브쉬티챠 -Koprivshititza)**

소피아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함.

1860년대 불가리아의 독립운동 본거지로서 당시 불가리아 전통양식의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음. 자연 경관도 좋은 작은 마을임.

**(벨로그라칙 -Belogradchik)**

소피아에서 3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고대 동굴과 돌기둥이 있음.

**(바르나 -Varna, 부르가스-Bourgas)**

소피아에서 5-6시간 거리에 위치함.

흑해 연안의 여름 휴양 도시이고, 불가리아의 주요 항구도시임.

**(보로베츠 -Borovets)**

소피아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함.

**(팜포로보 -Pamporovo)**

소피아에서 3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함.

**(반스코 -Bansko)**

소피아에서 2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함.

겨울철 스키 리조트가 유명하고, 주로 영국, 독일의 스키 관광객이 많이 방문함

**(넷세바르 -Nesebar)**

소피아에서 4시간 30분거리에 위치함.

흑해중부연안의 소도시이고, 전통양식의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음

**(소조폴 -Sozopol)**

소피아에서 4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함.

흑해남부해안의 소도시이고, 전통양식의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음

**<관광안내 웹사이트>**

ㅇ 불가리아 전체 소개 : www.bulgariatravel.org
ㅇ 한국인여행사 : www.jikotour.com

## 14. 국토

**< 위치 >**

북위 41-44도, 동경 22-28도 정도의 동남부유럽에 위치. 동남쪽으로는 터키, 남쪽으로는 그리스, 북쪽으로는 루마니아, 서쪽으로는 세르비아, 마케도니아와 접경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흑해와 접하고 있음.

지리적으로 불가리아는 유럽과 아시아(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에 위치, 동서양 문화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

**< 면적 >**

110,919 평방KM(한반도의 1/2), 유럽국가중에서 15번째 규모, 미국의 테네시주 보다 약간 큼. 육지 110,555 평방 KM, 강 및 호수360 평방KM이고, 국경길이 총 1,808KM 해안선 길이 354KM, 영해 12해리이고, 경작가능지 37%, 산림 35%, 목초지 16%이고, 관개지역 12,370 평방KM임.

**< 행정 구역 >**

9개 광역 행정지역으로 나누어지고 237개 타운, 4,419개 마을로 구분

**< 지형 >**

북부, 남동부는 구릉 및 평야지역. 나머지는 대부분 산악임.

- 북단은 북위 44도 13분  동경 22도 40분에 위치한 TIMOK강,
- 남단은 북위 41도 14분  동경 25도 17분에 위치한 VEYKATA봉,
- 동단은 북위 43도 32분  동경 28도 37분에 위치한 SHABLA봉,
- 서단은 북위 42도 19분  동경 22도 22분에 위치한 KITKA봉

인접국으로는 북부는 루마니아(609KM), 남부는 그리스(493KM), 동부는 흑해(378KM)와 터키(259KM), 서부는 구유고(506KM)로 국경선 총 길이는 2,245KM임.

국토길이는 동서로 세르비아 국경에서 흑해연안까지 520㎞이며 남북으로는 루마니아에서 그리스까지 330㎞임.

국토면적의 5% 정도는 해발 1600m 이상의 고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악지대는 국토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함.

최고봉은 해발 2925m의 Musala(릴라산맥)이며 알프스 이남의 발칸반도에서 가장 높음. 이어 Vihren(피린산맥)은 해발 2914m 임. 이들 산악지대는 불가리아 남부 지역에 위치함.

로도피산맥은 릴라산맥의 동쪽에서 시작되어 그리스와의 국경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음

지진 및 산사태 등의 다발 자연재해가 있음.

남부지역은 산악지대로 겨울에는 스키리조트 관광객으로 붐빔. 겨울철 스키관광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러시아 등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스키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음

흑해 해안지역은 총 연장 378㎞이며 여름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관광수입에 매우 중요한 지역임. 흑해연안 남쪽지역은 바위, 절벽 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반면 북쪽 지역은 모래사장으로 대조적임

루마니아와 국경을 이루는 다뉴브강은 강을 이용한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동굴은 약 700개가 있으며 가장 깊은 굴은 415m이며 가장 긴 동굴은 약 15㎞를 넘고, 1600여개의 온천지대가 있음.

## 15. 국민

**< 민족 기원 >**

남슬라브족의 하나로 분류되며, 7세기경 현재의 불가리아 땅으로 이주, 정착함. 주로 트라키아인, 슬라브족, 중앙아시아쪽에서 이동한 불가인(Bulgars)이 서로 동화되어 불가리아 민족을 형성함.

**< 트라키아인(Thracians) >**

청동기 시대 때부터 현재 불가리아 대부분 지역에 정착해 있던 종족으로 기원전 2000년경인 청동기시대 중반에는 그리스 및 아나톨리아지역으로 정착지가 확장되었음. 초기에는 동굴근처 또는 하천근처에 정착했으며 후기에는 다소 높은 지역에 방어 목적으로 성벽을 쌓고 정착을 하였음. 평화를 유지했던 트라키아인들은 나중에 마케도니아인, 그리스인, 슬라브인에 의해 흡수되었음.

이들 트라키아인의 유적은 불가리아 대부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기원전 3000년전의 유적이 Burgas 등 흑해연안에서 발견되었으며 플로브디프에서는 기원전 5000년의 유적이 발견되었고 스타라자고라, 산단스키, 멜닉, 반스코, 스몰랸, 슈멘, 만다라등의 지역에서도 트라키아인의 유적이 발견되었음. 트라키아인의 유적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기원전 40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인데 무덤내부의 그림이 천연색으로 온전히 남아 있음.

**< 그리스인(Greeks) >**

그리스인들은 주로 흑해연안에 진출하여 정착하였으며 Varna, Balchik, Burgas, Sozopol 등의 항구를 통해 밀, 생선, 소금 등을 그리스의 도자기와 교환하였으며 트라키아인의 보석제품 및 금속제품 등과도 교류하였음. 그리스인들은 불가리아 지역의 내륙지방에는 정착을 기피했는데 이들은 주로 무역에 종사한 이유도 있지만 트라키아인들이 이미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음.

**< 마케도니아인(Macedonians) >**

기원전 345년경에 필립2세에 의해 불가리아의 대부분 지역이 마케도니아의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트라키아인들도 마케도니아인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음.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지배는 50년에 불과했음. 당시 마케도니아는 현재의 플로브디프(Plovdiv)를 수도로 정하였음.

**< 로마인(Romans) >**

기원전 1세기경부터 로마는 흑해연안의 그리스항구 도시에 욕심을 두고 이를 정복하기 시작하여 바르나항구에 기지를 두고 관할하기 시작하였음. 서기 47년경 로마는 대부분의 발칸 반도를 정복하였으며 다뉴브강 지역에 요새를 건설하였고 점령과정에서 파괴된 흑해연안의 그리스 항구들도 로마제국과의 교역을 위해 다시 건설하였음.

**< 비잔틴인(Byzantines) >**

330년 비잔틴이 콘스탄티노플(현재의 이스탄불)로 변경되고 동로마제국의 수도가 된 이후 395년경부터 불가리아를 침략하여 흑해연안의 도시를 정복하기 시작하였음. 비잔틴인들은 불가리아인 및 슬라브족과 전쟁을 벌였으며 제1불가리아 제국이 멸망한 1018년부터 제2불가리아제국이 탄생한 1185년까지 불가리아 지역 대부분을 정복하였음. 그러나 비잔틴 제국은 1453년 오토만 터기제국에 의해 멸망함.

**< 슬라브족(Slavs) >**

5세기말부터 현재의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슬라브족이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나중에 불가리아에 있는 트라키아인, 불가리아인들과 융합되어 도공, 직조공, 철공 등의 직종에 종사하였음.

**< 불가리아인(Bulgars) >**

5세기 경부터 아시아지역으로부터 불가리아인들이 발칸반도로 유입되어 정착하기 시작하였으며 비교적 용맹한 이 부족은 슬라브인 및 트라키아인과 융합, 정복하면서 불가리아지역 전역에 정착하게 되었음.

**< 민족 구성 >**

불가리아인 85.3%, 터키인 8.5%, Gypsy 2.6%, 마케도니아인 2.5%, 미국인 0.3%, 러시아인 0.2%, 기타 민족 0.6%.

소수민족중 터어키계의 구성비가 높은 이유는 불가리아가 1396년이후 1878년까지 약 500년 동안 오스만투르크의 지배를 받은 결과임.

**< 민족간 갈등 >**

불가리아내에서 사회적 문제화될만한 민족간 갈등은 없음. 다만 집시(Roman)에 대한 차별이 일부 문제로 제기됨.

출생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중의 하나로써(12.6명/천명) 인구증가율은-1% 임. 이러한 영향으로 16세 이하의 인구 점유율이 낮아지고 이민, 낮은 출산율로 인해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또한 현지 경제여건이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너무 낮아 젊고 유능한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ㅇ 평균 수명은 남자 67.2세, 여자 74.9세임.
ㅇ 인구밀도 : 73.9명/㎢
ㅇ 인구집중율 : 도시 약 1,000명/㎢, 농촌 약 30명/㎢
ㅇ 인구중 85%가 불가리아 정교이며, 13%는 회교, 기타 카톨릭 및 개신교
ㅇ 종교적 차별 또는 분규가 없음
ㅇ 공용어 : 불가리아어
ㅇ 상용어 : 영어, 러시아어, 불어, 독어, 터키어 등
ㅇ 불가리아어를 구사할 경우, 슬라브민족의 나라와 의사소통이 어느정도 가능한 편이며 최근 젊은층에서는 영어 구사가 가능한 층이 늘고 있음. 중·장년층에서는 독어, 불어 구사가능자가 많음.
ㅇ 문맹율은 2-3%임.

**<우리나라와의 유사성>**

외국인에 대해 친절, 비교적 정직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답례정신이 강함.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하고, 주소표기 방식이 동일하며, 매운음식을 즐김.

**<우리나라와의 차별성>**

기독교 정신이 배경,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유행에 비교적 민감하지 아니하며, 종전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잔존함.

긍정 및 부정의 고개 움직임이 반대이고, 경제보다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음.

## 16. 역사

**< 기원전 >**

- 약 2만년전 청동기와 철기시대에 트라키아인이 거주
- BC 480년경 트라키아인에 의한 도시국가 건설

**< 로마 지배 >**

- AD 46년부터 로마 식민지배
- 480 불가리아인 아시아지역으로부터 유입 시작
- 5세기 야만족의 침입으로 로마제국 쇠퇴

**< 제1불가리아제국 >**

- AD 681년경 불가리아인들이 현재의 위치로 이주, 정착. 불가리아 국가 건설 (Han Asparouh가 Pliska를 수도로 결정)
- 861년 보리스1세(Boris I) 기독교로 개종, 불가리아인의 개종 시작
- 855년 또는 862-3년 키릴형제가 불가리아문자 (키릴문자) 발명
- 893년 수도를 Pliska에서 Preslav로 이전
- 927년 수도를 Ohrid(현재의 마케도니아)로 이전
- 1018년부터 동로마제국 식민지배

**< 제2불가리아 제국 >**

- 1185년 동로마로부터 독립
- 1218-1241 Ivan Assen 2세의 통치 아래서 국토가 아드리아해안에서 에게해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확보

**< 터키 식민지배 >**

- 1396년부터 1878년까지 약 500년간 오스만터키의 지배
- 1762년 불가리아 문예부흥기의 시작(오스만터키의 지배 저항 운동 시작)
- 1877년 러시아 대 오스만터키 전쟁 선포

**< 근 대 >**

- 1878년 러시아. 터키전쟁의 결과 터키로부터 독립 (3월 3일, San Stefano 조약)
- 1878년 베를린 조약에 의거 San Stefano 조약에 의해 불가리아에 부여된 영토 중 3분의 1이 열강에 의해 분할됨
- 1879년 Battenberg의 알랙산더 왕자가 부임
- 1879년 소피아를 수도로 설정
- 1885년 동루멜리아지역이 불가리아로 통합(9월 6일)
- 1886년 알렉산더 폐위
- 1886-19018 페르디난드1세 왕자로 설정
- 1908년 오토만제국으로부터 독립 선언 페르디난드 1세 즉위(9월 22일)
- 1912년 1차 발칸전쟁,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가 터키에 대항하여 전쟁
- 1913년 2차 발칸전쟁, 불가리아는 세르비아, 그리스, 루마니아, 터키의 연합군에 패하여 영토를 상실
- 1915년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과 연맹
- 1919년 1차 대전에서의 패배로 영토 상실 (Neuilly 조약)
- 1918-1943 보리스 3세 통치
- 1941년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과 연맹
- 1943년 보리스 3세 사망, 시메온 2세 즉위
- 1944년 소련군 진주

**< 공산화 >**

- 1945년 '게오르기 디미트로프(Georgi Dimitrov)' 공산당 서기장 집권
- 1946.9 인민공화국 선포
- 1946.9 시메온2세 망명
- 1948.12 5차 전당대회에서 국가 미래개발을 위해 소련 모델 채택 결정
- 1949 게오르기 디미트로프 사망, 불코 체르벤코프(Vulko Chervenkov) 집권
- 1954 토도르 지브코프(Todor Zhivkoc) 서기장 선출

**< 민주화 >**

- 1989.11 공산정권 붕괴(토도르 지브코프 퇴진), 민주화 시작
- 1989.11 16개 야당정치기구가 민주세력연맹(Union of Democratic Forces;UDF) 결성
- 1990.1 안드레이 루카노프(Andrei Lukanov) 수상으로 지명
- 1990.6 최초의 직접선거에 의해 의회구성
- 1991.7 민주주의 신헌법 채택
- 1991.11국명을 '불가리아 공화국'으로 개칭
- 1991.11 민주세력연맹(UDF)가 총선에서 승리, 110석을 획득
  - 필립 디미트로프(Philip Dimitrov) 내각 출범
- 1992.1최초 직접선거에 의해 Zhelyu Zhelev 대통령 당선(민주세력출신)
- 1992.12 Berov 내각 출범
- 1994.10 대통령 국회해산, 과도내각 구성
- 1994.12 조기총선 실시
  - 사회당(BSP, 구공산세력 중심)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여 구공산세력의 재집권

- ㅇ 1995.1 잔 비데노프(Zhan Videnov) 내각 출범 (사회당 당수)
- ㅇ 1996.11 대통령 선거에서 UDF 소속의 피터 스토야노프(Peter Stoyanov) 대통령 당선
- ㅇ 1996.12 잔 비데노프(Zhan Videnov) 내각 사임
- ㅇ 1997.1 사회당 퇴진 및 조기총선 요구 시위 발생
- ㅇ 1997.2 대통령 및 여, 야간 조기총선 합의
- ㅇ 1997.4 조기총선 실시
  - UDF 가 52% 의 지지 획득으로 재집권
- ㅇ 1997.5 이반 코스토프(Ivan Kostov) 내각 출범
- ㅇ 2001 총선
  - 2001.4 국회의원선거 결과 시메온2세운동연합(SNM)이 제1당으로 등장
  - 2001.7 SNM과 MRF 연합내각 (시메온2세 내각) 출범
- ㅇ 2001.10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당 게오르키 파르바노프(Georgi Parvanov) 후보가 당선
- ㅇ 2004.4.2 NATO 가입
- ㅇ 2004.6.15 EU 부문별 가입협상 완료

## 17. 정치사회동향/정치사회동향 및 대외정책

**[정치동향]**

**< 사회주의 몰락 이후 >**

90년 공산주의 붕괴 이후 초기에는 비교적 안정을 찾았으나 정권유지에 실패하여 사회주의 정당과 우파 정당들이 교체되면서 정치적인 불안정 시기를 맞이하였음.

95년 1월 출범한 사회당의 Videnov 내각은 금융. 외환위기, 식량위기, 높은 인플레 등 경제 정책 실패와 부패, 조직범죄 만연, 그리고 96.11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 패배 등을 배경으로 사임했으며, 이어 사회당 정부 퇴진 및 조기총선 요구 시위가 야당 UDF 의 주도로 97.1월 한달간 계속.

97.2월 사회당은 제2기 내각 조각에 실패하고 야당측의 조기 총선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국회가 해산되고 총선을 위한 과도 내각이 구성됨.

97.4.19 실시된 조기총선에서는 UDF가 52%, 사회당이 22%의 지지를 획득, 민주화 이후 UDF 의 재집권이 이루어졌으며, Ivan Kostov 수상의 UDF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배경으로 정치. 경제. 사회 개혁에 박차를 가했는데 97년 및 98년에 전반적인 정국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국영기업의 민영화, 은행.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실시 등 정치, 경제, 사회부문의 개혁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집권층의 잇따른 권력형 부정, 부패 스캔달의 폭로와 함께, 높은 실업율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표와는 달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개선되지 않아 2000년도에는 UDF 정부에 대한 인기가 크게 떨어졌음.

**<2000년대 초>**

2001년 7월 실시된 총선에서 UDF가 몰락하고 시메온2세가 이끄는 SNM 정당이 제1석을 차지

한 바 SNM은 터키계 정당인 MRF와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시메온2세 연립내각이 출범하였음

시메온2세국민운동연합(SNM) 등 집권당은 보수적인 재정정책, 균형재정 달성, 세금 감면, 외국인투자유치, 부패척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OECD 비회원국 중 부패방지협약에 최초로 가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패문제는 아직도 불가리아의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음.

경제는 '97년까지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98년 이후 2003년까지 연간 4-5%의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공기업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따른 유휴 노동력 양산으로 실업율이 아직도 12.5% 이상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음. 다만 전반적인 거시경제지표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SNM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크게 하락되지는 않고 있으나 2003년들어서서 Bulgartabac, BTC 등 공기업의 매각 실패, 부정부패의 지속,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원의 탈당, MRF와의 불협화음 등으로 다소 약화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음.

2003년 10월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현 집권당인 SNM의 지지율은 20% 수준에 머물러 집권당 지지도가 낮은 상황임.

2004년들어서서도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의 큰 변화는 없으며 별다른 이슈가 없음.

**<2005 총선>**

2005년 6월 25일 국회의원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각 정당간 연합 등 활발한 정치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총선 2개월 전에 실시된 여론 조사결과 가장 높은 지지도를 획득하고 있는 정당은 사회당(BSP)이며 현집권당인 SNM의 지지도가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최근 국제 관계]**

**< EU 및 NATO 가입추진 >**

89년 공산주의체제 몰락이후 서구와의 통합을 위한 EU 및 NATO 가입 등을 주요 외교정책 목표로 설정.

**(EU 가입 추진)**

95년 2월 EU준회원국 지위 획득(체코 및 루마니아와 동시) 이후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고 1999년12월 이후 가입 협상을 시작한 이래 루마니아와 함께 2007년 1월 1일 가입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였음.

- 2004년 6월까지 EU가입을 위한 31개 협상과제를 모두 타결하였음.
- 2004년 7월부터 가입협정문 작성에 돌입.
- 2005년 4월 25일 EU 가입협정문 서명.

- 2004.6 부문별 가입협상을 완료하면서 EU가 정한 수준이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가입이 1년간 연기될 수 있다는 소위 보장조항이 추가되었으며 따라서 부문별 협상내용의 이행이 부진할 경우 2008년 1월 1일부 가입으로 연기될 수 있음. 그러나 그동안 EU 가입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2005년 상반기에 가입협정문 서명 절차 등을 모두 끝마쳐 불가리아의 EU 가입 추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며 2007년 초 가입을 낙관하는 분위기임.
- 한편 유로화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유로화를 사용 할 예정.

(NATO 가입)

- ‘94년 2월 NATO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계획(PFP)에 서명하고 NATO 기준에 따른 군개혁 및 NATO 와의 고위급 정치대화 강화
- 2003년 4월 NATO가입 의정서에 서명
- 2004년 4월 2일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코소보 사태 반응>**

코소보 사태가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 동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 3.12 제3차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어키3국정상회담 및 3.19 남동유럽 5개국(불가리아, 루마니아, 터어키, 그리스 및 마케도니아) 외무장관 회의 등을 통해 평화적 해결 촉구

불가리아는 코소보 지역주민 인권보호, 코소보 자치 보장 및 현 유고 연방 영토 유지원칙을 지지하였음

코소보 난민과 관련, 동 난민을 코소보 인근 지역에 두고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난민을 불가리아내에 거의 수용하지 않고 마케도니아내의 난민에 대한 각종 지원 제공하였음

**<발칸지역 협력 강화>**

**(정치. 군사협력)**

- 기본적으로 발칸 역내국간 배타적 동맹결성에 반대하고 선린 우호관계 추구
- 최근 역내국간 정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남동유럽 국방장관 회의 및 외무장관 회의 등에 적극 참여 하고있으며, 코소보 사태를 계기로 발칸지역 다국적 평화유지군」창설에 주도적 역할

**(지역경제협력기구 참여)**

-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는 1992년 흑해연안국간 수송, 에너지. 통신, 농업, 금융 및 환경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터어키의 주도로 공식 출범한 개방적 지역경제협력 기구
- 현재 회원국은 11개국(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루지아, 그리스, 몰도바, 러시아, 터어키, 우크라이나)이며 옵서버는 7개국(폴란드, 튀니지아,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이집트 오스트리아, 이태리)임.

- BSEC 창설 당시, 회원국간 정치적 대립(특히, 그리스-터어키) 등 많은 제약 요인에도 불구, 공동 관심사항인 경제개발 및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기능적 협력을 도모, 제도적 경제협력체로 진일보중.

(중구협력체(CEI: Central European Initiatives)

- 89년 공산정권 붕괴이후 헝가리, 오스트리아, 유고 및 이태리 참여하에 역내분쟁 해결 및 중부유럽내 분열 방지를 위한 지역협력체로 태동
- 92.7 비엔나 개최 정상회의시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가입하였으며, 95.10 몰도바가 1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중구자유무역기구(CEFTA: Central Europe Free Trade Agreement)

- 코메콘이라는 사회주의 지역 경제블록 체제 와해 이후 대서방 교역 의존도 급증에 따른 상호 교역 축소방지, EU 가입 원화화를 위해 92.12 체결되어 93.3.1부터 발효
- 회원국(7개국) : 체크,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99.1.1. 가입).
- 98.9.11-12 체크의 프라하에서 개최된 CEFTA 정상회의에서 회원국간 농산물 교역자유화, 역내 무역분쟁 해결기구 등을 논의하였으나, 각국간 이해대립으로 합의도출에 실패
- 2004.5.1부 체크,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EU 가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회원국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이며 이들 2개국이 2007년 부터 EU에 가입하면 실질적으로 CETFA는 존재 의미가 없게됨

(남동유럽경제회의(SEEF: Southeast Europe Economic Forum)

- 남동유럽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및 공동 관심사항 협력 등을 위해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정례회의 성격
- 매년 소피아에서 공동 관심사항, 경제발전을 위해 회의 개최

<미국과의 관계>

적극적인 친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라크 관련 제재 및 대 테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음.

2003년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 지지 노선을 견지하여 EU 회원국 일부로부터 비난을 받은 일도 있음.

<러시아 및 CIS와의 관계>

대서방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러시아 및 CIS와의 관계강화를 추진.

최근 석유, 가스 등 러시아에 지나친 에너지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쟌, 그루지아 등과 흑해항로 개설 및 송유관증설 등을 모색

**<아시아와의 관계>**

한국, 일본, 호주, 중국 및 아태 신공업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희망함

상대적으로 EU 및 미국과의 관계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아시아 지역과는 경제협력 증진을 중심으로 교류를 강화하고 있음.

## 18. 국가경쟁력/일본 JCRA 불가리아 투자적격 등급으로 평가

불가리아가 처음으로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불가리아에 대해 처음으로 투자적격 평가를 내린 기관은 일본신용조사국(JCRA)이다.

JCRA에서는 2003년 7월부터 불가리아의 외환장기 신용등급을 BB+에서 BBB-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 이로써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받은 불가리아 경제는 세계재정 A그룹 국가중에 속하게 됐는데, 이와 같은 신용평가 등급의 상향 조정은 지난 2년간 9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불가리아 경제의 안정성 및 성장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JCRA의 신용평가 상향조정 판단이유는 정치, 경제, 예산 개정 및 중기간에 지속될 경제성장 전망 및 엄격한 세금정책 및 외채규모 등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JCRA에서 불가리아 경제상황이 아직도 14% 이상의 높은 실업률과 근로자의 25%가 농업에 고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벨체프 불가리아 재무부 장관은 불가리아가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얻는 시기로 2005년말쯤 예상했었으나 2년이나 앞당겨진데 대해 고무적이며 향후 다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불가리아 재무부 고위 당국자는 IMF보드를 2007년 이후에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EU 가입 후 2년내에 유로화를 도입할 계획으로 돼 있다는 점이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얻게 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JCRA의 불가리아 투자적격 등급으로의 상향조정은 최근 5년간 불가리아의 경제 성장이 4~5% 선에서 지속되고 있고 금년들어 정부의 재정수입 흑자폭이 확대되고 아울러 실업률도 16%선에서 14%선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호전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 부문의 통제가 강하고 제도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기에 있어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Green Field의 경우 전반적으로 불가리아 제조업이 침체되어 있어 단기간에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19. 주한 주재국기관

**(불가리아 대사관)**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23-42
- 전화 : (02) 794-8625/6

- 팩스 : (02) 794-8627
- 경제담당참사관 : Mrs. Dobrinka Vitcheva

(불가리아명예총영사)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14
- 전화 : (02) 3014-2800
- 명예총영사 : 김희용 회장

(한-불가리아친선협회)
-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73-15
- 전화 : (02) 461-9226
- 팩스 : (02) 461-4998
- 협회장 : 최조현 회장

## 20. 물가정보

| 항 목 | 기준품목 | 금액(USD) | 품목 내역 |
|---|---|---|---|
| 식 품 기호품 | 김치찌게 | 10.00 | 1인분 |
| | 햄버거 | 1.72 | 맥도날드 빅맥 1개 |
| | 수입담배 | 1.55 |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 |
| 주 택 사무실 |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 1,800.00 | 150m2/월, Semi-furnished |
| |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 1,200.00 | 150m2/월, Semi-furnished |
| | 사무실 임차료 | 3,000.00 | 150m2/월 |
| 교 통 차 량 | 자동차 2000cc | 24,200.00 | 한국산, 오토, 에어컨 |
| | 시내버스 요금 | 0.29 | 1구간 |
| | 택시요금 | 0.23 | 기본요금 |
| | 택시요금 | 0.22 | 추가요금, Km당 |
| 통 신 전 기 | 공중전화요금 | 0.07 | 시내, 3분 |
| | 국제전화(할인) | 6.21 | 현지-서울, 3분 |
| | 전기요금 | 0.31 | 가정용, 1Kwh |
| | 인터넷 사용료 | 28.70 | 1개월 기본료 |
| 교 육 |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 3,038.00 | 초등 1년간 |
| | 외국인 학교 수업료 | 15,000.00 |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
| 레져.오락 | 골프장 그린피 | 28.70 | 비회원, 18홀 1라운드 |
| | 영화 관람료 | 4.60 |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
| 의 료 | 병원진료비 | 100.00 |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
| 호 텔 | 특급호텔 숙박료 | 170.00 | 할인, 싱글 1박 |
| | 중급호텔 숙박료 | 100.00 | 할인, 싱글 1박 |
| 임 금 | 사무실비서 월급여 | 250.00 | 초임, 학력불문 |
| | 사무실직원 월급여 | 500.00 | 대졸, 초임 |

# 21.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불가리아는 과거 소련위성국에서 탈피하여 EU, NATO가입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시장경제 개혁 및 민주화, 시장개방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서유럽 및 인근지 터키, 그리스 등과의 교역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불가리아의 2003년도 수입규모가 107억불에 불과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98년도부터 수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인구는 780만명 정도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국가이나 '98년부터 경제개혁 및 안정화 정책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여 발칸지역에서는 가장 안정된 국가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독일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하며 정보통신, 에너지, 유통분야에서 서구기업의 진출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며 저임노동력을 기반으로 이태리 등 인근국의 임가공 봉제생산기지가 되고 있음.

한편, 지하경제규모는 약 35%로 추정되며 도시인구는 71%이며 인구 구성 비상 15-64세인구가 570만명 정도임.

불가리아는 발칸지역경제 및 인프라통합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역간 통상증진을 위한 국경통과애로사항 해소 및 통관시간 단축, 범유럽 자동차 고속도로망의 하나인 European Corridor 8 이 지나가며 철도망의 유럽망과 표준화 및 연계, 다수의 에너지 및 통신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음. 그러나, 시장자체가 작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조산업이 거의 없고, 국내연관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가. 특정 집단의 현지 상권 장악상태

시장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특정집단의 불가리아 상권장악 상태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불가리아의 역사적 배경(오스만 터키의 500년 지배)으로 인해 터어키계와 그리스계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불가리아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는 아님.

동 집단의 상권장악 형태도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유통업 진출정도이며 소위 보따리 장사로써 불가리아의 시장을 커버하고 있음.

### 나. 수입상품의 품질 고급 정도와 판매가격 수준

경공업제품은 한국의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 등 아시아 산이 싼 가격에 팔리고 있음. 가격은 자국산에 비해 약간 비싼정도이며 품질은 고급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아국산 경공업제품의 진출이 가격면에서 어려운 상태임.

중공업제품은 불가리아산이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주로 수입품을 선호하고 있음.

불가리아 시장내에 가장 잘 팔리는 외국상품으로는 TV등 전자제품, 자동차 등임

소피아의 주요 번화가인 Vitosha 거리에는 외국 유명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밀집돼 있으며 북쪽 외곽지역에는 중국 등 저가품상품이 판매되는 시장이 밀집돼 있어 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관세상의 불리점**

불가리아는 EU의 준회원국이자 CEFTA회원국이면서, 터키, 마케도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세르비아, 몰도바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공업제품은 대부분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하며 수입업체에서는 원산지를 위조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우리나라 제품이 서유럽이나 인근지를 통해 간접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를 변경하여 무관세 통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라. 전문매장의 증가**

전문매장 설립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 전문 매장이 각 지역별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음

대형유통점이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으며 소위 체인식 매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Metro, Billa에 이어 Praktiker, HIT 등 외국 유통업체의 진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대형 유통매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아울러 전문매장의 경우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도시에도 진출하는 등 유통매장의 설립이 하나의 붐을 이루고 있음

이들 유통매장의 경우 직접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대부분 현지 전문 수입 공급업체를 통해 물품을 납품받고 있으므로 전문 수입 공급업체를 통해 공급 가능성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22.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불가리아 소비자나 기업들은 구매력이 낮아 가격에 가장 민감하며 일부 소비자들은 "Buy Bulgarian"을 선호하기도 함. 그러나 불가리아에는 봉제산업을 제외한 이렇다할 제조산업이 없으며 품질수준이나 다양성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불가리아의 소득분배구조상 대다수의 저소득층과 일부 신흥 고소득층으로 구분되며 중간 소득층이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시장 규모가 상당히 작으며 저가품과 고가품 시장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이로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판매가능 품목을 선정하기가 어려움

그러나 지하경제비중이 높고, 빈부격차가 심해 상당수 수입품 가격은 서구, 미국 상가에서 판매되는 유사, 같은 제품보다 실제로 더 비싼 경우도 많으며 이들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

불가리아 진출시 불가리아의 지리적 여건(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그리스, 터키 인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마켓팅 전략이 필요함.

불가리아는 시장자체가 작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사나 사무소대신 현지인을 에이젼트나 디스트리뷰터로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과의 거리, 언어 및 문화장벽, 시장규모를 감안해야 하며, 에이젼트, 디스트리뷰터와 계약시 동파트너의 재정력, 네트웍, 신용도, 현지인맥 활용가능성등 제반사항을 꼼꼼히 사전 체크해야 함. 또한 직접 수시로 방문하여 시장 돌아가는 상황 및 동파트너의 능력, 영업실적등을 현장체크해야 함

불가리아에서 은행, 에이젼트, 비지니스 파트너, 원/하청업체, 고객 등의 신용조사를 할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조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Credit Reform Bulgaria가 가장 권위가 있으며 최근에는 D & B 등 국제신용조사기관이 진출하여 영업을 전개하고 있음. 또한 불가리아내에도 신용조사 전문기관(BCRA)이 설립되어 이용이 가능한 상황임

우리나라로 부터의 수입시에는 수송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송비용, 신용장개설 수수료 부담 등이 높아 신용장 방식이 아닌 사전송금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거래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어 신용도가 쌓인 경우에는 선적 후 신용을 제공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2-3년 거래를 해온 관계라고 할지라도 평소때보다 주문을 많이 하고, 송금신청서를 송금증명서로 보내준 후 물건이 도착되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계속 접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용거래시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수입상은 통상적으로 50% 마진을 보고 도매업체에 물건을 팔고, 도매업체는 다시 100% 마진을 보기 때문에 소비자 최종 구매가격은 수입가격의 300%가 대부분 넘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마진율은 품목마다 편차가 심하며 상당수 품목은 미국이나 EU가격의 25% 높은 경우도 있음. 반면 전자제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현지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검토하여 수출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나라 제품은 비교적 이미지가 좋게 형성되어 있으나 중국산의 저가품 공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격경쟁에서 열세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가격경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지나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가 필요하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지 수입상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전자제품의 경우 유럽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품목마다 마진율이나 가격수준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가격을 오퍼할 경우 가능한한 C&F Varna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부는 그리스항구 데살로니키를 이용하기도 하며 Varna 항구로부터 소피아까지 내륙운송비는 20피트 컨테이너 하나에 약 800달러가 소요됨

현지화의 경우 유로화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유로화로 제시하는 것이 편리하며 환율변동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음. 현지 수입상들의 경우 달러화에 의한 오퍼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수입상도 환율 변동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로화에 의해 거래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지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서유럽 대형유통업체들의 경우 직접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기 보다는 현지의 수입상을 통해 공급받기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현지 유통매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수입업체를 발굴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

## 23.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투자여건>**

동서양의 교차 지점이자 발칸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불가리아의 지리적 여건,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체결되어 있는 자유무역협정 및 2007년도 EU 가입 추진,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 활용할가치가 높은 곳임

1990년 시장경제체도 도입 이후 정치, 경제적인 과도기로서 불안한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을 내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어 투자에 대한 정치적인 위험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전반적인 투자위험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일본의 신용평가기관인 JCR에서 투자적격으로 평가했으며 2004년도에는 S&P, Fitch 등에서 투자적격으로 투자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음. 세계주요 신용평가기관 중 Moody's사의 경우 투자적격등급보다 한단계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 자유화

- 불가리아는 외국인 투자의 장려와 이중과세 철폐를 위해 상호 투자보장 협정에 대한 국제협약을 체결
-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송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함.
- 외국인 투자자는 외화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나, 투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 국가의 보상에 의한 양도 재산, 투자 종료시 발생하는 청산 자금, 투자 상품에 대한 판매 수입, 강제집행 영장 시행관련 금액 등에 관한 외화의 해외송금은 세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외환관리

- 불가리아 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외환관리법을 개정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국제환거래를 자유화 하였음.
- 동법에 의해 내외국인의 외반반출입이 허용됨. 그러나 외화 수출의 경우 1만유로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소정의 서류에 근거하여 은행을 통해 지불하여야 함.
- 또한 외환관리법은 영업활동(자영업포함)에 의한 해외지불은 은행 송금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품의 수입, 운송, 원금 및 이자, 보험, 종업원 교육, 의료비. 치료비 등과 같은 경상적인 국제 지급에 대한 송금이 20,000BGN 상당 액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불목적을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투자보호제도

- 불가리아 헌법과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가리아 투자자와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명시해 놓고 있음. 단 자연인은 토지취득 불가하며, 법인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제한없이 취득 가능함. 외국인 자연인의 경우 2014년부터 토지 취득을 허용하도록 헌법이 개정되었음
- 동 규정은 모든 경제활동에 적용되며, 국영기업 사유화 과정의 참여와 주식, 국채, 사채, 기타 모든 유가증권의 취득에 있어서도 적용이 됨
- 그러나 정부의 관료주의, 열악한 인프라, 빈번한 법률 개정, 과다한 세금, 은행체제 미확립 등은 대불가리아 투자자들에게 불만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외국인투자유치노력>**

시장경제 도입이후 경제구조 재편성, 기업의 소유권 민영화, 생산 시설의 현대화 등을 통해 생산기업에 대한 국가의 간여도를 줄이고 있는 한편 경제 자체를 시장기능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자체의 부족한 투자재원을 충당하고 고용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97.4월 조기총선을 통해 재집권한 UDF정부는 IMF와 합의한 통화 위원회 도입(97.7월)등 금융개혁, 신속 과감한 경제구조 개혁, 민영화 촉진,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등 경제 재건을 위한 개혁조치를 강력 추진한 바 있으며 이어 2001년 7월 출범한 시메온 2세 내각도 시장경제 체제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다만 2005년도 6월 총선에서 사회당(BSP)이 집권할 경우 외국인투자유치 환경이 다소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불가리아에서 외국인투자는 경제 특히 수출상품생산분야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새로운 기술과 보다 세련된 경영방법의 채택을 통해 금융제도의 운영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최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불가리아 정부는 투자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의 외국인투자법을 투자진흥법으로 개정하였는데 2003년 10회의 승인을 거쳐 2004년 4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8월부터 발효하였음. 이법을 통해 법적 프레임워크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준과 완전히 일치시키고, 투자인센티브제공을 강화하는 데 있음

2004년에 개정된 투자진흥법의 핵심내용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절차와 관련하여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청으로부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투자규모에 따라 인프라건설 등에 대한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투자규모가 BGN10백만에서 50백만인 1그룹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투자이행과 관련 우선적인 대우를 보장받는 특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행할 수 있음
- 투자규모가 BGN50백만에서 100백만인 2그룹의 경우 법에 규정된 기간보다 단시일 내에 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얻는 권리가 부여됨

- 투자규모가 BGN100백만을 초과하는 3그룹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 계획 단계부터 실제 기업활동 개시 시기까지 제반 지원을 하는 특별 직원이 임명되어 여러 국가 기관으로부터 요청되는 제반서류 제출업무 등을 담당하며 투자시설 주변의 도로, 전기, 용수와 같은 인프라의 개선이나 건설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004년 5월에 제정된 투자법(The 2004 Law on Investment)에 의거 종전의 외국인 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은 투자청(Invest Bulgaria Agency)로 개칭되었으며 외국인투자 뿐만아니라 내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총괄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편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외국인투자가의 내국인대우 범위 확대, 몰수 및 국유화시 보상,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가의 지적재산권 및 안전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2004년 5월에 제정된 투자법에는 투자관련 자금 이동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투자자금 이동, 과실송금이 보장되고 있음

**<외국인투자동향>**

불가리아투자청(Investment Agency;종전 Foreign Investment Agency)에 의하면 ‘92년부터 2003년 까지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금액은 미$63억이며 이 가운데 민영화에 의한 FDI 규모는 미$20.5억으로 나타났음

2002년도 FDI는 미$9억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미$20.9억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4년도에는 미$25억으로 최대치를 나타냈음. 그러나 이와 같은 FDI증가에는 2003년도 DSK은행의 헝가리 OTP사에 대한 매각금액 미$3.6억, 2004년도 통신 서비스사인 BTC 지분 매각, 전력송전업체의 매각 등 불가리아 국영기업의 매각 영향이 큰 상황임.

**<투자시 참고사항>**

수도 소피아를 중심으로 750㎞ 범위에 15개국 90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기에 있는 구사회주의 국가들임. 불가리아에 대한 투자시 불가리아 시장 자체를 겨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불가리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EU 및 CEFTA, 터키,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이스라엘, 몰도바 등이 모두 시장이라고 간주할 수 있음

불가리아 화폐인Lev화는 유로화와 고정되어 있으며 통화위원회의 엄격한 환율 관리로 98년부터 환율이 안정되어 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대유로화고정환율 : 1유로 = BGN1.95583)

불가리아는 발칸지역에서 가장 규제가 약한 외국인투자법을 채택, 시행하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임. 외국인투자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인설립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며 그 다음이 주식회사임

외국인투자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인투자장벽은 정부의 관료주의, 열악한 인프라, 충분한 사전예고 없는 잦은 신법 제정 및 개폐, 낮은 구매력, 은행시스템 낙후, 민영화 지연,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율임

불가리아와 상사분쟁시 국제중재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한편 불가리아업체들은 전통적으로 제 3국에서 상사중재가 가능한 경우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 불가리아 상공회의소의 상사중재원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불가리아 상공회의소(BCCI)에 상사중재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사중재는 기본적으로 국제통상법에 관한 UN위원회 모델법에 적합하게 되어 있으며 1958 New York Convention 체약국이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ICSID)협약의 체약국임

○ 불가리아의 장점
- 지정학적으로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대 CIS, 중동시장진출 거점으로 활용 가능
- 발칸반도 중심부에 위치, 1억명 이상의 소비시장 마케팅에 유리
- 97년 출범한 신정부의 강력한 시장경제개혁추진으로 국제신인도 제고되고 있으며 투자 및 무역관련 법규를 개정과 함께 경제개혁, 민영화추진에 대한 정치권 및 제도권의 지지가 확고함
- 기술적인 인프라가 어느정도 되어 있으며 저임기술노동력이 풍부
- EBRD지원과 GSM 서비스로 낙후된 통신시설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가들도 토지매입(농지 제외)가능하며 과실송금이 자유로움
- 세제상 인센티브제도, 저비용으로 활용가능한 자원이 풍부함
- EU, EFTA, CEFTA, 터키등과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이들시장에 자유로운 접근이 점차 가능
- EU 가입협상이 2000년 2월 부터 개시됨에 따라,각종 지원자금 유입 및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될 전망임
- 전반적인 거시경제지표가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음

○ 불가리아의 EU 가입 추진 경과
- 2000.12 EU 정상회담(니스개최), 불가리아등 동구권 12개국 EU 가입 및 시기
- 공식결정으로 불가리아의 외국인투자환경개선 가속화 및 외국인 투자확대 기대
- 2002.12 EU정상회담에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7년 1월 1일부 EU가입을 목표로 초청
- 2004.6.15현재 31개 부문별 EU가입협상 완료
- 20054.25 EU 가입의정서 서명 예정

## 24. 전반적 투자여건/자유무역지대

불가리아에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를 Industrial Zone으로 변경하여 설치, 운영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 하였으나 중단 상태에 있음

자유무역지대는 ‘87년의 칙령 번호 2242(Duty Free Zones and Its Regulationsfor Application)에 의해 6개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부가 설립한 회사에 의해관리, 운영되고 있음. 2개는 다뉴브강 인근 (Vidin, Rousse)에 설치되어 중앙 및서유럽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인 이점이 있으며 2개는 유럽의 주요 통로인세르비아와의 국경지대(Dragoman)와 터키와의 국경지대(Svilengrad)에 설치되어 있음. 그외에 1개처는 불가리아의 제2도시인 Polovdiv에 설치되어 있고다른 하나는 흑해연안인 Bourgas에 설치 운영되고 있음

‘99년 1월 관세법에 의해 자유무역지대는 자유지대(Free Zone)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자유지대 내에서는 생산, 무역 및 서비스 등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활동이가능하게 되었음

2003년에 들어서서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Indusrial Zone 법의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2003년말 경제부장관의 교체와 함께 중단된 상태에 있음. 동 법안에 의하면 산업단지 입주시 어떠한 특혜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건별로 협상토록 하고 있음

불가리아내 자유지대(Free Zone)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FREE ZONE - BOURGAS PLC**
Address: 5 Trapezitsa Street, P.O. Box 154, 8000 Bourgas, Bulgaria
Tel.: (+359 56) 84 20 47
Fax: (+359 56) 84 15 62
Web: www.freezonebourgas.com
E-mail: info@freetradezone-bourgas.com

**FREE ZONE - DRAGOMAN PLC**
Address: 16 Zahari Stoyanov Street, 2210 Dragoman, Bulgaria
Tel.: (+359 7172) 2431
Fax: (+359 7172) 2431

**FREE ZONE - PLOVDIV PLC**
Address: 242 A, Vasil Levski Street, P.O. Box 75, 4003 Plovdiv, Bulgaria
Tel.: (+359 32) 906 233
Fax: (+359 32) 960 833
Web: www.freezone-plovdiv.com
E-mail: frzone@plovdiv.techno-link.com
freezone@ plovdiv.techno-link.com

**FREE ZONE - SVILENGRAD PLC**
Address: 6500 Svilengrad
Tel.: (+359 379) 73344, 73445
Fax: (+359 379) 73541
Web: http://www.dutyfreezone.hit.bg/
E-mail: freezone@infotel.bg

**FREE ZONE - VIDIN PLC**
Address: Severna Promishlena Zona, 3700 Vidin, Bulgaria
Tel.: (+359 94) 602 060, 602 047, 602 048
Fax: (+359 94) 602 046

**FREE ZONE - ROUSSE PLC**
Address: 5 Knyazheska Street, P.O. Box 107, 7000 Rousse, Bulgaria
Tel.: (+359 82) 831 113, 831 111
Fax: (+359 82) 831 112
Web: www.freezone-rousse.bg
E-mail: trade@freezone-rousse.bg, manager@freezone-rousse.bg

# 25. 전반적 투자여건/회사설립절차

**<회사의 형태>**

ㅇ 불가리아에서 인정되는 사업체의 형태는 다음과 같음

- 무한책임조합(an unlimited partnership)
- 유한책임조합(a limited partnership)
- 주식책임조합(a 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 주식회사(a joint-stock company)
- 공개기업(a public company)
- 개인사업자(a sole trade)
- 합작회사(a joint venture)
- 지사(a branch)
- 지주회사(a holding)
- 협동조합(a co-operative)
- 연락사무소(a representative office)

협동조합과 연락사무소 형태의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사업체는 Commerce Act 1991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되며 은행, 보험회사, 및 공개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일부 적용되게 됨. 협동조합의 경우 Cooperative Act 1999에 의해 관리되며 연락사무소의 경우 Foreign Investment Act 1997에 의해 관리됨

대부분의 외국기업이 현지투자시 채택하는 사업체의 형태는 1명의 단독투자 형태를 포함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임. 이들 법인은 해당 지역 법원에 사업등기를 하여야 함

**<회사형태의 사업체>**

ㅇ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OOD)

- 회사자본 출자자는 1인 이상이며 출자자의 책임은 출자지분에 한함
- 출자자는내국 및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가능함
- 최소 수권자본금은 BGN5,000(2,557유로)이며 주식의 액면가치는 BGN10 이상이어야 함
- 설립등기시 최소한 수권자본금의 70%이상이 납입되어야 함
- 주주총회는 최소 연1회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
- 주주가 1명인 경우 회사의 명칭은 EOOD를 사용하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구성함
- 대차대조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AD)

- 주식회사의 주식 액면가치는 최소 BGN1이상임
-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되어야 함
- 출자자는 1인 이상의 내국 및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가능함
- 최소자본금은 BGN50,000(25,574 유로) 이상임. 다만 사업영역에 따라 최소자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은행의 경우 BGN1천만, 인명보험 BGN2백만, 재산보험 BGN3백만, 재보험 BGN4백만, 투자회사 BGN50만, 민간의료보험 BGN2백만, 민간연금 BGN3백만 등임
- 주식은 보통주, 우선주 등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음
- 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 대차대조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ㅇ 공개기업(Public Company)

- 주식회사이며 Securities, Stock Exchanges and Investment Act 1995에 의해 관리되어왔으나 현재는 Public Offering of Securities Act 1999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ㅇ 지주회사(Holding Comapny)

- 주식회사, 유한책임조합 등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으며 타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또는 개입 등을 목적으로 할 수 있음
- 지주회사는 경영권을 행사할 대상 기업의 지분을 최소한 25% 이상 보유하여야 함

ㅇ 지사(Branch)

- 모국에 등록된 외국법인 및 자연인은 불가리아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음
- 지사는 법인은 아니지만 독립된 법인처럼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함

ㅇ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모국에 등록된 외국법인 및 자연인은 불가리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연락사무소는 법인은 아니며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ㅇ 합작회사(Joint Venture)

- 합작회사는 외국인과 내국인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며 외국인의 참여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음
- 합작회사는 Commerce Act에 의한 법인의 형태를 취하여야 함

**<회사형태의 사업체 설립절차>**

ㅇ 회사가 지방법원의 상업등기소에 등록된 날짜가 회사의 설립일로 간주됨

ㅇ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OOD)

-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권자본금의 70% 이상 납입하여야 함. 출자자가 다수일 경우 각 출자자는 최소한 지분의 30% 이상 납입하여야 함
- 회사가 상업등기소에 등록되면 관보에 그 내용이 게재됨

ㅇ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AD)

-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하고 수권자본금이 완전히 주주간 배분되어야 하며 주식의 25% 이상 납입되어야 함
- 이사외 및 감독기관을 선임하여야 하며 일부 특별분야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허가(은행, 보험 등의 경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허가증)를 득하여야 함
- 회사가 상업등기소에 등록되면 관보에 그 내용이 게재됨

ㅇ 지사(Branch)

- 사업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Commerce Act 1991을 참조

ㅇ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불가리아상공회의소(BCCI)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부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등록에는 1-3일 정도가 소요됨

**<기타 형태의 사업자 및 설립절차>**

ㅇ 무한책임조합(unlimited partnership)

- 2명 이상의 파트너가 필요하며 각 파트너는 상호 무한책임을 짐
- 외국인이 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획득하여야 함
- 최소 등록 자본금 규정은 없음
- 파트너는 각각 1개의 표결권을 행사함
-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함

ㅇ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

- 2명 이상의 파트너가 필요하며 1명 이상은 무한책임 파트너가 있어야 함
- 외국인이 무한책임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획득하여야 함
- 무한책임파트너가 해당 조합의 경영권을 행사함
-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함

ㅇ 주식유한책임조합(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 1명 이상의 무한책임파트너와 3명 이상의 유한책임파트너로 구성되어야 함
- 외국인이 무한책임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획득하여야 함
- 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함

ㅇ 협동조합(Co-operative Society)

- 자발적 개인 조합으로 자본과 조합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형태임
- 조합원은 개인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함
- 외국인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획득하여야 함
- 조합원은 총회에서 각각 1개의 표결권을 행사함

ㅇ 개인사업자(Sole Trader)

- 영주권을 가진 개인은 누구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음

ㅇ 외국인이 개인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체재허가 취득

-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체의 경우 10인 이상을 고용할 경우 장기체류허가(1년짜리)를 획득할 수 있음
- 외국인개인사업체의 현지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6개월짜리 체류허가가 발급될 수 있음
- 외국 개인의 투자규모가 500만레바(25만유로) 이상일 경우 종업원 규모에 관계없이 장기체류허가(1년짜리)를 발급받을 수 있음

ㅇ 통상적으로 현지 법인의 경우 두가지 등록번호를 발급받음

- Bulstat 번호 : 통계번호로 불리며 대사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부여 받게 됨
- Tax 번호 : 납세자번호로 불리며 대사관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부여 받게 됨

**<회사설립 비용>**

ㅇ 회사설립비용은 모든 절차를 스스로 할 경우에는 등록수수료 및 번역공증비용 등이 소요되며 등록수수료 및 번역공증비용으로 약 300레바(150유로) 정도 소요됨

ㅇ 회사설립절차를 대부분 현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비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음
- 일반개인변호사 : 700레바(약 350유로)
- 유명법무법인 : 4,000레바(약 2,000유로)

## 26. 전반적 투자여건/조세제도

ㅇ 불가리아의 조세는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직접세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특별물품세
- 기타 : 지주세, 관세

ㅇ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법(Personal Income Tax Act)에 의해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에게 부과됨. 거주자는 불가리아에 영구 거주지가 있거나 1년 365일중 183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함.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 불가리아로부터 얻은 소득에 한해 소득세 납부 의무가 부과됨
- 불가리아내에서의 사업활동으로부터 얻은 개인소득은 과세 대상이며 개인의 사업활동이라 함은 불가리아내에 사업체가 있거나 활동근거가 있고 불가리아내에서

소정 과업을 수행하거나 부여 받은 것을 것을 의미함

- 개인소득세 면제 대상
- 부동산의 교환 또는 판매로부터 얻은 소득

1) 동산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부터 얻은 소득
2) 법정연금 또는 의료보험, 사회보장보험으로부터 받은 보상
3) 은행 저축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법정으로부터 얻은 이자 또는 비용명목으로 받은 금액
4) 사회금융지원금 및 실업수당 등의 금전적 및 비금전적 소득
5) 정부의 아동양육비
6)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
7) 비엔나 협약에 의한 외교관 소득
8) 농지 임대료

- 과표 : 과세대상 득의 연간 합계

- 과표 공제

1) 확정적으로 과세된 소득
2) 법정 사회보장세. 개인 사회보장세
3) 기여금 (과표의 10% 이하를 한도로 함)

소득세율(2005년도 기준)

| 연간소득(BGN) | 소득세 |
|---|---|
| 0-1,560(월 130)이하 | 면제 |
| 1,560(월 130)초과-1,800(월 150) 이하 | 1,560 초과금액의 10% |
| 1,800(월 150)초과-3,000(월 250) 이하 | BGN24+1,800초과금액의 20% |
| 3,000(월 250)초과-7,200(월 600) 이하 | BGN264+3,000초과금액의 22% |
| 7,200(월 600) 초과 | BGN1,188+7,200 초과금액의 24% |

- 원천징수 : 고용주가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

- 소득별 과세 기준

1) 자본이득 : 자본취득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이를 과세 대상 금액으로 산출
2) 자유직업소득 : 소득발생시 15%를 징수하되 법정 사회보장세 등 납부금액은 공제할 수 있음
3) 경영진소득 : 민간계약에 의해 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취득한 소득은 연간종합소득세 정산 대상임. 소득발생시 15%를 원천징수함. 다만, 경영진이 연간 183일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세 납부 기준에 의거 징수하며 사회보장세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고 고용주부담 사회보장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음
4) 개인사업소득 : 연간종합소득세 정산에 의해 과세
5) 임대소득 : 연간종합소득세 정산 대상이며 소득의 15%는 과표에서 공제 허용됨. 임대소득이 외국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15%의 지주세 징수

6) 로열티 및 기술료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15%의 지주세를 원천 징수. 경영서비스수수료는 기술료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지주세 과세 대상이 아님
7) 배당소득 : 소득의 15%를 확정적으로 원천징수함
8) 리스, 팩토링, 프랜차이징 계약 소득 : 연간 정산대상 소득임
9) 이자소득 : 비과세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소득은 15% 확정 과세 대상
10) 기타 소득 :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150%를 확정 과세 징수함

- 배우자는 독립된 과세 대상이며 배우자간 소득의 합산 및 분배 신고는 허용되지 아니함
- 개인연간소득종합신고 기한은 익년 4월 15일
- 개인소득세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개인소득세법(Private Income tax Act; www.bfia.org 사이트) 참조

ㅇ 법인소득세

- 법인소득세법(Corporate Income tax Act)에 의해 모든 회사 및 조합은 법인소득세 납부 대상임
- 법인소득세율은 지방세율을 포함하여 15.0%가 적용됨.

- 특별법인소득세율

1) 보험 및 재보험료에 대한 세율은 7%이며 생명보험료에 대한 세율은 2%임
2) 게임, 복권 등에 종사하는 업체의 경우 베팅수익금에 대한 세율은 8%이며 티켓 판매에 대한 세율은 12%임
3) 선물구입, 오락, 후원 등에 대한 비용처리와 관련 적용세율은 25%임
4) 관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수리, 관리 비용 등은 20%의 세율이 적용됨

- 재산세율 :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0.15%의 재산세가 부과됨
- 지사의 소득 : 지사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기타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가 있음
- 자본소득 : 자본소득은 법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소득세 과세 대상임
- 배당소득 : 타 내국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지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불가리아 업체가 납부해야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지주세가 부과됨. 불가리아 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지불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의 지주세가 부과됨

● 고실업율지역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 정책

- 과거 2개년간 연속으로 실업율이 평균 50%를 초과하는 지역(해당지역은 법인소득세법 부록에 첨부되어 있음)에 투자할 경우 법인소득세가 감면됨. 그러나 지방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 해당 기업의 투자는 인수, 현대화, 유형고정자산의 재건축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로 해당 투자자금은 신주인수를 위한 주주들의 추가 출자 등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함
- 법인세 감면금액은 출자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 법인세 감면금액은 투자연도로부터 5년까지 가능함

○ 지주세(Withholding Taxes)

- 불가리아에서 발생한 특정형태의 소득 중 외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15%의 지주세가 부과됨
- 지주세부과대상 소득 유형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음

1) 배당소득
2) 이자 및 금융리스
3) 로열티
4) 기술서비스료
5) 임대료
6) 리스 및 프렌차이징, 팩토링
7) 부동산 처분 자본이득, 주식 및 금융자산 자본이득

- 우리나라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5;외국기업의 지분이 15%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정부 및 국가금융기관, 비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면제)%, 로열티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됨.
- 지주세 납부기한은 익년도 3월 31일임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99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유럽의 부가가치세법과 제도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음
- 과거 12개월간 과세매출 BGN75,000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은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여야 함. 과세매출액이 BGN50,000에서 BGN75,000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등록자는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달 14일 이내에 전월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현재의 부가가치세율은 20%임. 다만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2005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8%로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품목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함)

○ 특별물품세

- 특정물품의 반입시에는 물품세를 납부하여야 함
- 과세품목 : 주류(맥주 및 포도주 포함), 담배제품, 연료, 일정규모 이상의 자동차, 카지노설비 및 게임용품, 커피 및 차

○ 관세

- 물품수입시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 납부시 물품세 및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여야 함
- 불가리아와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다음 국가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율이 적용됨 : EU, EFTA, CEFTA, 마케도니아, 터키, 크로아티아, 이스라엘,몰도바. 특히 공산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관세로 수입됨

## 27. 전반적 투자여건/고용 및 노사관계 제도

ㅇ 노동시장 여건

- 불가리아의 노동시장은 현재 공급 초과상태이며 2004.9 현재 실업율이 11.8%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저기능 및 고기능 노동력의 조달이 용이하며 임금도 상당히 낮은 상태임
- 실업율은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50%를 넘는 곳이 많음
-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임금이 낮아 고급기술인력은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현상이 심하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인근 서유럽에서의 취업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ㅇ 정부의 고용 증대 정책

- 높은 실업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외국기업의 진출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임
- 정부에서는 고용촉진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자 재교육을 통해 연간 4-5만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실업율은 최근 수년간 완만하게나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재정정책에 대한 IMF의 관여 등으로 인해 고용촉진정책의 시행에 한계점도 있음

ㅇ 인력 확보

- 신규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대학졸업인력 등의 확보는 비교적 용이하지만 시장경제 체제에 익숙한 중간 관리자 및 고위경영진을 확보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움
- 현지에서 가장 보편적인 인력 확보 방법은 인력조달 에이젼트를 활용하는 것임. 인력공급 에이젼트는 4-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인력공급 에이젼트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조달하는 것이 빠르고 용이함. 현재 활동중인 업체로는 Hill International, New i, PMC, AIMS Human capital Bulgaria 등이 있음
- 다른 방법은 현지 일간지의광고를 통해 인력을 모집하는 것임. 현지에서 인력 확보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일간지는 24Hours, Troud 등이 있으며 경제지인 Pari나 Capital 등도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광고매체임

ㅇ 임금수준

- 정부의 공식적인 평균임금은 월 150유로(미$200) 정도임
-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이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불가리아 국제 경영협회(Bulgarian International Business Association;BIBA)에서는 부문별로 20-30개 기업의 평균임금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 바 이의 수치가 비교적 적합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 기본임금 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이도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고용주 및 피고용자에게 사회보장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여야 함
- 한편 정부에서 정한 2004년도 최저금임은 월 120레바(60유로), 2005년도 최저임금은 월 150레바(약 75유로)임. 불가리아 정부는 상공회의소, 산업협회 등 경제단체의 반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도에 비해 25%를 인상한 바 이는 2005년도 6월의 총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음

ㅇ 고용계약

- 고용계약 및 조건은 불가리아 노동법의 Labour Code에 명시되어 있으며 노동법상 인종, 성별 기타 요인에 의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의 노동조건은 노동조합연합, 경영자협회, 정부 등 3자간의 합의에 의해 설정됨
- 불가리아의 노동조합연합은 The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s of Bulgaria와 Podkerpa 등 2개가 있음
- 개별 기업차원의 고용계약은 고용주와 노동조합간의 합의에 의하며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자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불가리아의 경우 실업율이 높고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워 노동조합의 권한이 강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사태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고용계약서에는 장소, 일의 내용, 급여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무기한 계약이어야 함.
- 2005년도부터 단기간 용역이 인정되는 경우는 법률 또는 컨설팅 서비스에 국한되며 기타 임시고용계약의 경우에도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원천징수 납부 대상이 되었음. 법률,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 15%의 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의무가 있으며 사회보장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됨. 임시고용계약의 경우에는 지급시 연간소득수준에 의거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의무가 발생함. 통상적으로 단기용역계약의 경우 연도 시초부터 받은 소득을 신고받아 소득세를 산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수습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인정됨
- 소득세, 법정 사회보장세 등은 원천 징수하여야 함
- 고용계약 해지시 30일에서 3개월까지 사전 통지 대상임

ㅇ 사회보장세

- 고용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회보장세 담당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 불가리아내에 근무하는 모든 내국인 및 외국인은 사회보장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사회보장세는 모든 위험을 카버함
- 사회보장세는 2004년까지는 고용주와 피고용자간 75:25의 비율로 납부했으나 2005년부터는 분담율이70:30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까지 피고용자의 부담을 높이고 고용주 부담을 낮춰 50:50의 분담율로 조정할 예정임
- 의료보험(보험율 6%)을 포함한 사회보장세율은 피고용자 총 급여의42.7%임. 이중 30.1%는 고용주부담이며 12.6%는 피고용자 부담임.
- 세부사회보장세내역별 고용주와 피고용자간 부담율. 피고용자 총급여의 %를 의미
  . 사회보장세 : 23.8%/9.9%
  . 연금기금부담 : 2.1%/0.9%
  . 의료보험부담 : 4.2%/1.8%

ㅇ 근무시간

- 대부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의 근무시간 제도를 채택함
- 일일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9시부터 17시이며 공장의 경우 7시-15시 근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

ㅇ 유급휴가

- 고용계약 후 8개월 근무 이후 최소 20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어야 함. 연차휴가는

최소한 2주간 단위로 분할할 수 있음
- 출산여성의 경우 135일간 사회보장당국으로부터 9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출산 후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보험을 받을 수 있음
- 상당히 많은 종류의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병가, 국가시험휴가, 학생의 경우 시험휴가 등 매우 다양한 편임

ㅇ 정년
- 정년은 일반적으로 63세이나 직종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비교적 육체노동이 심한 직종의 경우 57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음

ㅇ 외국인 고용
- 불가리아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불가리아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할 수 있음
- 그외의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시에는 신청서 2부, 사진 3매, 고용주의 취업요청서, 회사등록서류, 사업증명서, 자격증, 피고용자 신원증명서,고용주의 과거 12개월간 외국인고용실적증명서, 고용계약서, 특정 직업과 관련된 증명서,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함
- 노동허가증 발급에는 3주-1개월 정도 소요됨
- 고용주는 불가리아 정부에 BGN600을 납부하여야 함
- 외국인력은 전체 고용인력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28. 주요경제지표/경제지표

| 지표명 | 단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명목GDP | 미$억 | 129 | 126 | 136 | 156 | 199 | 241 |
| 실질성장율 | % | 2.3 | 5.4 | 4.1 | 4.8 | 4.3 | 5.6 |
| 1인당GDP | 미$ | 1,577 | 1,542 | 1,705 | 1,978 | 2,538 | 3,101 |
| 소비자물가상승율 | % | 6.2 | 10.3 | 7.4 | 5.8 | 2.3 | 6.1 |
| 실업율 | % | 16.0 | 17.5 | 17.9 | 16.3 | 13.5 | 12.2 |
| 소비지출증가율 | % | 5.2 | 5.7 | 4.4 | 4.1 | 6.6 | 5.0 |
| 수출(FOB) | 미$억 | 40.1 | 48.2 | 51.1 | 56.9 | 74.4 | 98.9 |
| 수입(FOB) | 미$억 | 50.9 | 60.0 | 66.9 | 72.9 | 99.1 | 132.6 |
| 무역수지 | 미$억 | -10.9 | -11.8 | -15.8 | -15.9 | -24.7 | -33.7 |
| 외완보유고 | 미$억 | 32 | 35 | 36 | 47 | 48 | 84 |
| 외채 | 미$억 | 101 | 101 | 106 | 112 | 130 | 154 |
| 연평균금리(3월) | % | 4.7 | 4.6 | 4.7 | 3.4 | 2.7 | 2.4 |
| 연평균환율 | BGN/$ | 1.83640 | 2.12334 | 2.18472 | 2.07697 | 1.73262 | 1.57511 |

자료원: Center for Economic Development (www.stat.bg)

**<10대 주요 수출국가>**

(단위 : 미$백만)

| 순위 | 국가명 | 2002 | 2003 | 2004 |
|---|---|---|---|---|
| 1 | 이태리 | 875 | 1042 | 1296 |
| 2 | 독일 | 543 | 803 | 1014 |
| 3 | 터키 | 530 | 680 | 992 |
| 4 | 그리스 | 521 | 773 | 987 |
| 5 | 벨지움 | 275 | 454 | 592 |
| 6 | 프랑스 | 303 | 378 | 447 |
| 7 | 미국 | 271 | 330 | 444 |
| 8 | 루마니아 | | 227 | 394 |
| 9 | 유고슬라비아 | 173 | 249 | 345 |
| 10 | 스페인 | 191 | | 334 |
| 56 | 한국 | 10 | 14 | 13 |

자료원 : 불가리아국립통계원(NSI)
주 : 순위는 2004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임

**<10대 주요 수입국가>**

(단위 : 미$백만)

| 순위 | 국가명 | 2002 | 2003 | 2004 |
|---|---|---|---|---|
| 1 | 독일 | 1128 | 1535 | 2103 |
| 2 | 러시아 | 1146 | 1349 | 1825 |
| 3 | 이태리 | 894 | 1101 | 1417 |
| 4 | 터키 | 390 | 658 | 869 |
| 5 | 그리스 | 476 | 715 | 829 |
| 6 | 프랑스 | 445 | 607 | 766 |
| 7 | 우크라이나 | 246 | 421 | 585 |
| 8 | 중국 | | 279 | 469 |
| 9 | 루마니아 | | | 425 |
| 10 | 영국 | 207 | 268 | 350 |
| 25 | 한국 | 47 | 74 | 110 |

자료원 : 불가리아국립통계원(NSI)
주 : 순위는 2004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임

## 29.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한-불가리아 교역통계

**<대불가리아 연도별 무역추이>**

(단위 : 천불)

| 연도 |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
| 1995 | 43,596 | 27,895 | 15,071 |
| 1996 | 49,957 | 20,965 | 28,992 |
| 1997 | 32,389 | 24,651 | 7,738 |
| 1998 | 43,622 | 33,223 | 10,399 |
| 1999 | 19,483 | 11,137 | 8,346 |
| 2000 | 22,698 | 9,077 | 13,621 |
| 2001 | 21,557 | 9,745 | 11,812 |
| 2002 | 28,536 | 14,861 | 13,675 |
| 2003 | 57,996 | 18,065 | 39,931 |
| 2004 | 279,014 | 19,829 | 259,185 |
| 2005(1-3) | 71,182 | 4,185 | 66,997 |

자료원 : 관세청

**<불가리아의 대한 무역통계>**

(단위 : 천불)

| 연도 | 수출 | 수입 | 무역수지 |
|---|---|---|---|
| 2002 | 10,239 | 45,292 | -35,053 |
| 2003 | 14,100 | 73,700 | -59,600 |
| 2004 | 110,203 | 10,292 | 66,997 |

자료원 : 불가리아 경제부

## 30.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 불가리아 품목별 수출실적

**<우리나라의 대 불가리아 품목별 수출>**

| 연도 | 2003 | 2003 | 2004 | 2004 |
|---|---|---|---|---|
| 품목명 | 금액(미$천) | 증가율(%) | 금액(미$천) | 증가율(%) |
| 총계 | 57,996 | 103.2 | 279,014 | 381.1 |
| 기계류 | 25,180 | 248.6 | 235,644 | 835.8 |
| 전자전기제품 | 14,746 | 84.3 | 18,926 | 28.4 |

| | | | | |
|---|---|---|---|---|
| 화학공업제품 | 10,184 | 40.6 | 14,980 | 47.2 |
| 섬유류 | 4,326 | 19.2 | 4,953 | 14.5 |
|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 1,417 | 154.2 | 2,040 | 44.0 |
| 철강금속제품 | 785 | 35.0 | 850 | 8.3 |
| 잡제품 | 781 | 213.8 | 319 | -59.2 |
| 농림수산물 | 362 | -58.7 | 868 | 139.5 |
| 생활용품 | 170 | 41.4 | 365 | 114.7 |
| 광산물 | 46 | -14.6 | 69 | 52.1 |

자료원 : KOTIS

## 31.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 불가리아 품목별 수입실적

**<우리나라의 대 불가리아 품목별 수입>**

| 연도 | 2003 | 2003 | 2004 | 2004 |
|---|---|---|---|---|
| 품목명 | 금액(미$천) | 증가율(%) | 금액(미$천) | 증가율(%) |
| 총계 | 18,065 | 21.6 | 19,829 | 9.8 |
| 화학공업제품 | 6,876 | 128.4 | 7,417 | 7.9 |
| 철강금속제품 | 3,016 | -24.8 | 1,211 | -59.8 |
| 섬유류 | 2,810 | 96.5 | 3,068 | 9.2 |
| 농림수산물 | 2,456 | -25.2 | 7,417 | 7.9 |
| 기계류 | 1,475 | -5.3 | 1,472 | -0.2 |
| 전자전기제품 | 1,308 | 33.5 | 2,811 | 114.9 |
|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 99 | 29.2 | 155 | 56.6 |
| 생활용품 | 22 | -95.1 | 109 | 399.4 |
| 잡제품 | 2 | -96.8 | 8 | 292.0 |

자료원 : KOTIS

## 32.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한-불가리아 투자교류 동향

**< 우리나라와의 대불가리아 투자>**

2005.2.28 현재 (단위 : 건수, US$천)

| 신고건수 | 신고금액 | 투자건수 | 투자금액 | 회수건수 | 회수금액 | 순투자건수 | 순투자금액 |
|---|---|---|---|---|---|---|---|
| 6 | 81,689 | 5 | 55,725 | 1 | 52,763 | 2 | 2,962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ㅇ 단독투자기업
- 현대중공업(주) : 변압기 제조, ‘97년 진출, 자본금 미$3백만

ㅇ 연락사무소
- 삼성물산독일법인연락사무소
- 현대종합상사연락사무소
- LG상사 연락사무소
- 삼성전자연락사무소

ㅇ 개인합작투자기업
- Sviloza (레이온)
- Harex Ltd (건축자재생산설비)

ㅇ 교포사업가
- HKC(봉제)
- Delica/Choice(무역/식품, 직물)
- KORBUL(자동차 부품)
- Auto Bulgaria(자동차 부품)
- Korea Motor Service (자동차 정비)
- Korea Motor(자동차 정비)
- HKA Ltd (PET 재활용)
- JIKO Tour (여행사)
- Lee’s Kor-Bul (여행사)
- Korean House (식당)

ㅇ 투자업체 철수 사례
- 대우(주)
  - 쉐라톤호텔 지분 67% 인수(’96.9, 22백만불)
    ⇨ 그리스 업체에 매각
  - 무역센터(Interpred) 지분 70% 인수(‘97.5, 22.7백만불)
    => 2001.12 이태리 업체에 매각
  - 대우자동차판매(주)
  - 대우자동차판매법인(주) : 자동차 판매, 자본금 미$100만
    => 2003.12 불가리아 업체에 매각
  - 대우자동차서비스(주) : 자동차 수리, 자본금 미$130만
    => 2003.12 불가리아 업체에 매각

[현지 투자기업 연락처 등 기본 정보는 무역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현지진출업체현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리아 기업의 우리나라 투자 진출 : 전혀 없음>**

## 33. 지방자치구역동향/주요지방자치단체

### □ 소피아시청

○ 기관명 : Sofia Municipality
○ 주 소 : 33, Moskovska Street, 1000 Sofia, Bulgaria
○ 전 화 : 359 2 981 1064
○ 팩 스 : 359 2 981 0255
○ Web-site : www.sofia.bg
○ E-mail : info@sofia.bg
○ 기관개요 : 소피아시청
- 시장 : Mr. Sofiyanski (2004.5부터 직무정지 상태임)
- 불가리아 수도인 소피아시청

### □ 루세시청

○ 기관명 : Rousse Municipality
○ 주 소 : 6, Svoboda Square, 7000 Rousse, Bulgaria
○ 전 화 : 359 82 222 739
○ 팩 스 : 359 82 222 508
○ Web-site : www.rousse.bg
○ E-mail : mayor@elits.rousse.bg
○ 기관개요 : 루세시청
- 시 장 : Mrs. Eleonora Nikolova
- 불가리아 북쪽 루마니아 국경도시

**< 플로브디프(Plovdiv) >**

### □ 플로브디프시청

○ 기관명 : Plovdiv Municipality
○ 주 소 : 1, Stefan Stambolov Square, 4000 Plovdiv, Bulgaria
○ 전 화 : 359 32 634 240
○ 팩 스 : 359 32 260 790
○ Web-site : www.plovdiv.bg
○ E-mail : N/A
○ 기관개요 : 플로브디프 시청
○ 시 장 : Mr. ivan Chomakov
- 불가리아 제2의 도시
- 소피아에서 150km 떨어져 있음(자동차로 1시간 40분 소요)
- 국제박람회로 유명한 도시

< 바르나(Varna) >

□ 바르나 시청

○ 기관명 : Varna Municipality
○ 주 소 : 43, 8 Primorski Polk Blvd., Varna, Bulgaria
○ 전 화 : 359 52 600 616
○ 팩 스 : N/A
○ Web-site : www.varna.bg
○ E-mail : kjordanov@varna.bg
○ 기관개요 : 바르나 시청
- 시 장 : Mr. Kiril Jordanov
- 불가리아 제3의 도시
- 흑해연안에 있는 불가리아 최대 항구도시

< 부르가스(Bourgas) >

□ 부르가스 시청

○ 기관명 : Bourgas Municipality
○ 주 소 : 26, Alexandrovska Street, 8000 Bourgas, Bulgaria
○ 전 화 : 359 56 840 915
○ 팩 스 : 359 56 841 314
○ Web-site : www.obstina-bourgas.bg
○ E-mail : N//A
○ 기관개요 : 부르가스 시청
- 시장 : Mr. Joan Kostadinov
- 흑해연안에 있는 항구도시

< 슈멘(Shoumen) >

□ 슈멘 시청

○ 기관명 : Shoumen Municipality
○ 주 소 : 17, Slavianski B;vd., Shoumen, Bulgaria
○ 전 화 : 359 54 800 890
○ 팩 스 : 359 54 800 400
○ Web-site : www.shoumen.bg
○ E-mail : mariela@shoumen.bg
○ 기관개요 : 슈멘 시청
- Mr. Vesselin Zlatev

< 스타라 자고라(Stara Zagora) >

□ 스타라 자고라 시청

○ 기관명 : Stara Zagora Municipality
○ 주 소 : 107, Csar Simeon Velik Blvd., Stara Zagora, Bulgaria
○ 전 화 : 359 42 600 105
○ 팩 스 : N/A
○ Web-site : city.starazagora.net
○ E-mail : Council_office@city.starazagora.net
○ 기관개요 : 스타자라고라 시청
- Mr. Evgenii Gelev

< 플레벤(Pleven) >

□ 플레벤 시청

○ 기관명 : Pleve Municipality
○ 주 소 : 2, Vazrajdane Square, 5800 Pleven, Bulgaria
○ 전 화 : 359 64 22 059
○ 팩 스 : 359 64 44 230
○ Web-site : www.pleven.bg
○ E-mail : mayoro@pleven.bg
○ 기관개요 : 플레벤 시청
- 시장 : Mr. Naiden Zelenogorski